



제60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 2023년 1월 18일(수) (도착분)

작품내용 8"×10"(자유작)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시 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

접수기간 2022년 11월 7일 ~ 2023년 1월 18일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접 수 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회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 02-2655-3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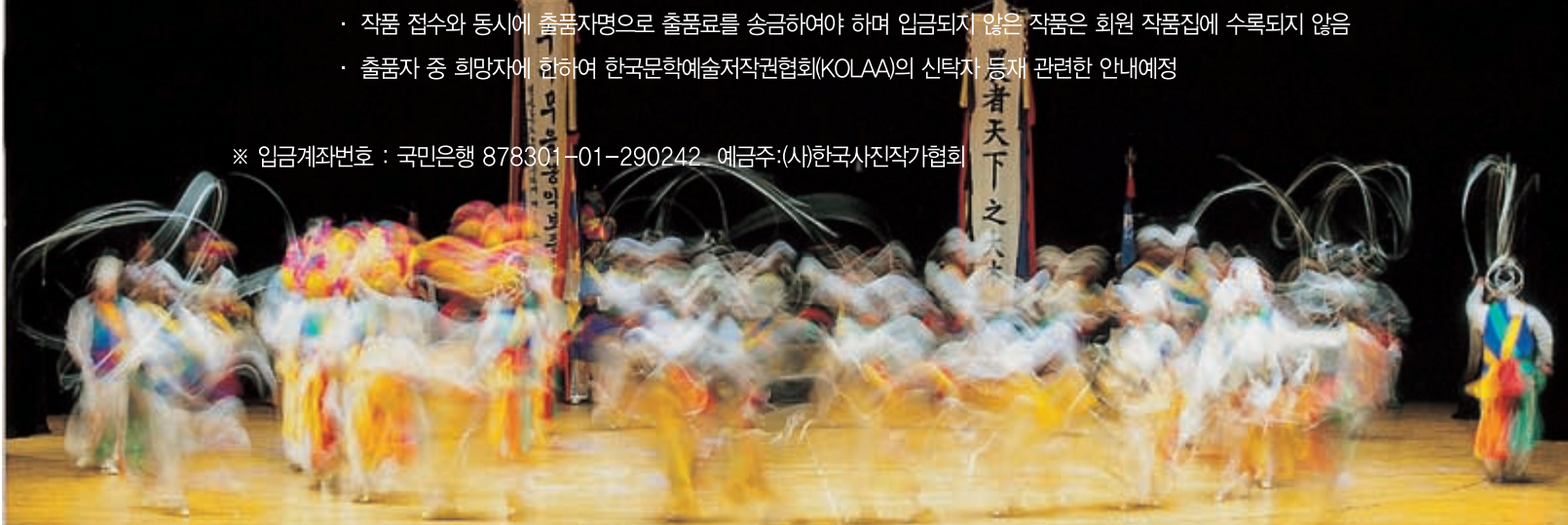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특 전 수상자는 2023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출품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KOLAA)의 신작자 등재 관련한 안내예정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Contents

November 2022 Vol.508

Cover Story



정종관(나주지부) 기다림

아득한 삶의 기억을 품은 듯
파노라마 같은 풍경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힘이 느껴지는 바다...
흘러가는 물길을 멈추게 한다.
그곳을 터전으로 발걸음을 하였던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한다.

03 Headnote

함께 손을 마주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22 특집/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진예술로 문화교류 확대”한 목소리
-주한사우디아라비아 사미 알사드한 대사 면담

30 전시광고

바람의 손길 스쳐간 곳에 '모네의 평화' - 물 위의 풍경 a watery landscape - 송진용
연하고 은은한 그리움 찾아 핀홀 촬영 - 해바라기 (색의 유혹) - 이상섭
꽃내음 가득한 경이, 동양화 속으로 - 五色圖苑 오색도원 - 권순중

42 지상전 01

영속하는 생명물질 디지털리즘에 담다
'색에 잠긴 형태들' - 서성강(천안)

46 Photo Essay 01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잊힌전설
Return to the lost territory...The Forgotten Legend' - 박경서(중구)

50 Photo Essay 02

먼길 발걸음 멈추고 소리없이 '공감'
자작나무, 그 자리에 있을 때 - 이만우(대구)

54 지상전 02

2022 평택사진축전 '바깥전' 심사를 마치고 - 박이찬
김효정_ 회색의 바다_ 번민과 위안 사이... 도돌이표처럼
배정옥_ 삶의 옴니버스 the omnibus of life_ 욕망 감춘 무표정에서 발견한 삶의 여정
장성숙_ 가면에 감춰진 자아_ 얼굴 가리고 내안에 나를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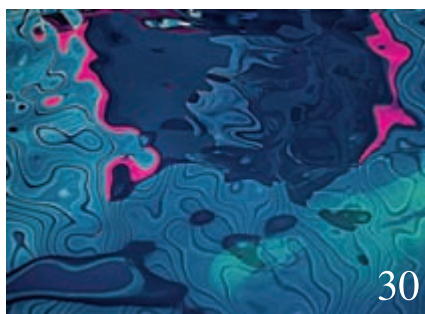
회원광장

58 Review &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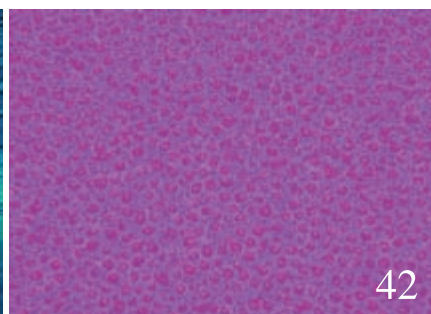
벼룩시장 떠돌던 작품... 알고보니 거장의 '숨씨'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 - 김재훈



22



30



42

함께 손을 마주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진작가 그리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협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에 회원님들에게 화합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 타 장르와의 경쟁을 통해 우리 협회에 유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의 열정과 재능, 희생과 헌신이 사진예술과 사진작가들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번 집행부 임기동안 징계를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사면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온 분들을 회원으로 복권시켜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협회 혹은 누구를 위한 조직은 없습니다. 오직 회원님들을 위한 한국사진작가 협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원님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민원과 진정을 통해 지회·지부나 회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을 넘는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협회의 일원이 되신 모든 회원님들께서 그 동안 기울인 노력과 시간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전하는 협회의 모습을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동안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 양 평

Contents

November 2022 Vol.508



46



58



68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김양평

퍼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7(편집장)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퍼낸날 | 2022년 1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홍보위원회 위원장 | 김종택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성주희, 이기범, 이종석, 임성동

편집장 | 노성진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광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강좌

64 Travel destination

세계 최초의 신문 탄압하고 망국의 길로...

유럽과 달랐던 조선의 보도통제 - 최승언

68 Lightroom

사진을 음악과 함께 재생하는 슬라이드 쇼 모듈-2 - 백종수

72 분과위원회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29대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촬영대회 개최 - 최옥임

환경사진분과위원회

2022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개최 - 최옥임

협회소식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6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한국예총 전국 대표자 워크숍 및 대한민국예술축전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90 Best Brand & Product

미래형 렌즈의 시작 - 소니 FW 70-200mm F2.8 GM II

95 Gallery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외

정가구독 1년 6만원

계좌 :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후원 위원을 모십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본 협회 발전과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활동을 함께 할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장학후원금 기탁 현황 (2022년 5월 31일 현재)

· 김양평 이사장 1억원 기탁

· 김광철 장학기금관리위원장 1천만원
· 강부만 운영자문위원회위원장 1천만원

· 김종택 부이사장 4백만원
· 최성웅 위원(이사) 5백만원
· 이한욱 위원(이사) 5백만원
· 범진석 위원(이사) 5백만원
· 유광종 위원(분과위원장) 5백만원

· 임만덕 위원(분과부위원장) 5백만원
· 이병화 위원(양천구지부) 5백만원
· 송재구 위원(이사) 3백만원
· 김재훈 회원(종로구) 1백만원
· 백승의 회원(안양지부장) 3백만원

· 이승자 회원(서울) 3백만원
· 결산이자 150,764원

· 총 기탁 금액
164,150,764원



제30대 정 · 부이사장 선거 관련 안내사항

제30대 정 · 부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된 일정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후보등록 및 선거일정

▶ 예비후보 등록

- 등록일 : 2022년 12월 1일(목)
-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 본 후보 등록

- 등록일 : 2022년 12월 22일(목)
-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 이사장 선거

- 선거일 : 2023년 1월 14일(토)
- 장 소 :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별 투표소

* 등록 및 투표시간, 투표 장소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될 '후보등록공고' 및 '선거개최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후보 등록일인 2022년 12월 22일(목)에 전체 회원 선거인 명부를 각 후보자에게 제공한 이후 22년 12월 31일까지의 회비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선거권이 상실 된 명단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통지 됩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22년도 회비까지 완납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본인의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대 정·부이사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성명	선거구	구분	소속
1	박옥수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중구지부
2	김완기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서울
3	김윤식	서울특별시	이 사	강남구지부
4	문제민	서울특별시	이 사	양천구지부
5	배택수	서울특별시	이 사	중구지부
6	이명수	광주광역시	이 사	광주지회
7	권영희	대구광역시	자문위원	대구지회
8	이흥기	대구광역시	이 사	대구지회
9	우경환	대전광역시	이 사	대전지회
10	김장환	부산광역시	자문위원	부산지회
11	송재구	부산광역시	이 사	부산지회
12	황치길	울산광역시	이 사	울산지회
13	곽준석	인천광역시	이 사	인천지회
14	김삼택	경기도	이 사	구리지부
15	이정휘	경기도	자문위원	수원지부
16	정해중	경기도	자문위원	성남지부
17	손석윤	강원도	이 사	평창지부
18	김응래	경상북도	자문위원	영주지부
19	박병우	경상남도	이 사	진주지부
20	정영현	경상남도	자문위원	거제지부
21	최성용	전라북도	이 사	익산지부
22	이심환	전라남도	자문위원	순천지부
23	김경호	충청북도	이 사	청주지부
24	이종석	충청남도	이 사	홍성지부
25	권기갑	제주도	이 사	제주지회

예배 선관위원

1	유병용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서울
2	김익배	서울특별시	이 사	송파구지부
3	한낙영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중구지부
4	김은곤	광주광역시	이 사	광주지회
5	유병주	대전광역시	자문위원	대전지회
6	최복수	인천광역시	이 사	인천지회
7	김정환	경기도	자문위원	부천시지부
8	조용진	경상북도	자문위원	포항지부
9	김삼경	경상남도	자문위원	진주지부
10	이막래	전라북도	이 사	군산지부



“B+W FILTER” 무한미디어와 함께...

신규 라인업

Titanium
최상의 라인업

MRC nano
나노코팅을 통한 투과율의 극대화

MRC
충실한 기본기



무한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02-518-7808 www.muhan8.com



CLEANING KIT

ALCOHOL-FREE CLEANING ITEM

광학 렌즈 및 카메라 전용 클리너!

무알코올 클리너로 코팅이 벗겨지거나
부식 및 열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분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충무로 사진 거리

‘무한미디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가지 못하듯, 사진과 카메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절대 그냥 지나쳐 갈수 없는 곳이 바로 충무로 사진 거리
가 아닌가 싶다.
가끔 단골 매장에 들러, 오래된 카메라들과 사장님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정겨움과 함께 현역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준 그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최근 메인 사진거리에 새롭게 오픈한 ‘무한미디어’ 매장에 발걸음을 해 보았다.



MUHAN

Camera & Gallery



REDVIX

Coffee



카메라, 커피 그리고 갤러리가 공존하는 따뜻한 매장

매장으로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 물어보니, 신세대카메라부터 반도카메라까지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원들이 독립하여 오픈한 매장이 라고 한다. 매장은 깔끔한 카페 같은 인테리어에 따뜻한 톤의 진열대와 라이카, 핫셀블라드, 린호프 등의 엔틱 중고 카메라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눈이 즐거운 매장 이었으며, 매장 안쪽에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과, 사진이 전시 되어 있는 아담한 갤러리 공간도 함께 자리 하고 있었다.



사진과 영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무한미디어'
'무한미디어' 김기중 대표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무한미디어'를 짧게 소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무한미디어'는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사
입니다.

독일 슈나이더사의 'B+W' 필터 제품과, 마킨스 제품의 한국 총판,
일본의 'CURA'의 카메라 전용 클리닝 제품 및 악세서리 한국 총판을
맡아 유통하고 있으며, '라이카', '핫셀블라드', '린호프' 등의 엔틱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함께 운영 하고 있습니다.



Q: 사진 업계에 오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한미디어'의 운영철학이 있을까요?

A: 어렸을 적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충무로의 신세대카메라에서
시작해 반도카메라의 영업이사를 하며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 느꼈던
것은 결국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사진과 영상을
사랑 하시는 고객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즐겁게 쉬어 갈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 및 유통 하는 제품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브랜드들
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사진과 영상을 아끼시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 제품들이 될지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업력 덕분 인지 젊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회사 운영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충무로에 볼일이 있으신 사진 애호가 분들을 위한 좋은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무한미디어'의 운영 철학과 함께 변창하여,
언제든 즐겁게 방문 할 수 있는 매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무한미디어
02-518-7808 / www.muhan8.com



Haida

New M10-II

필터 홀더 출시



M10-II 개선점



퀵 릴리즈 레버

누르는 방식의 퀵 릴리즈 레버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당기는 방식과 비교해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고 탈착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홀더 회전 잠금장치

홀더 회전을 막는 잠금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회전 잠금장치가 별도 적용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잠금장치가 추가되면서 원하는 위치에 필터를 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사각필터 고정 클립

손으로 탈착할 수 있는 일체형 사각필터 클립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볼트 고정 방식과 비교해 교체가 쉽고 빨라서 필터를 고정하는 클립이 느슨해졌을 때 쾌적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TC-2351C

휴대성을 높인 고성능 삼각대

| 5단 다리

| 접은길이 395mm (웨이트후크제외)

| 지지하중 20kg

모델명 : PTC-2351C

센터컬럼 포함 최대높이 : 1425mm

센터컬럼 제외 최대높이 : 1200mm

최저높이 : 130mm

접은길이 : 395mm (웨이트후크제외)

제품무게 : 1.48kg

지지하중 : 20kg

파이프 지름 최대 : 29mm

파이프 지름 최소 : 15mm

단수 : 5단

스파이크 : 38



전용 플레이트 시리즈

특정 모델 전용으로 설계해 완벽하게 결합되는 플레이트

LB-Z9M

Nikon Z9 전용 L플레이트



LB-GFX

FUJIFILM GFX 100S, 50S II
전용 L플레이트



LB-R5-UP

Canon EOS R5 전용 L플레이트



LB-SA4

SONY α7R IV 전용 L플레이트





벤로 오레올 RC1 렌즈변환 어댑터 절찬리 판매중

전 세계에서 한국키트에만 **‘독일 쇼트 광학유리’**로
별도 주문 제작 수입 판매



- 1 캐논 DSLR렌즈를 캐논 미러리스 바디에 장착가능 **렌즈어댑터**
- 2 2개의 필터가 중첩 장착 가능한 **필터프레임 2종**
- 3 대형 망원렌즈군/초광각 어안렌즈군 **필터 사용가능**

이 모든 구성이 오레올 RC1 하나로 OK!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사진: 탐험가_@withkhyun (석현)/ 스위스, 마테호른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81 www.benrokorea.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3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BENRO®
Let's go!



① 중앙일보

2022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 브랜드
벤로 코리아 대상 1위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81 www.benrokorea.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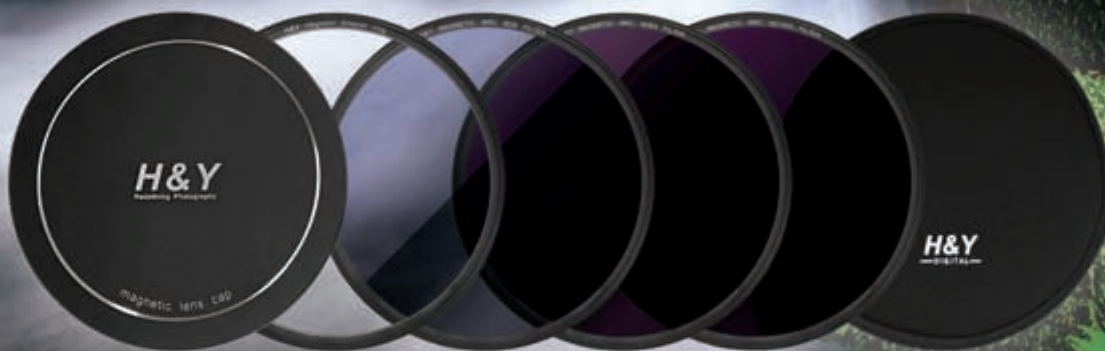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H&Y

마그네틱 ND 필터 키트

CIRCULAR MAGNETIC HD MRC ND 112mm FILTER KIT for Nikon Z14-24

for NIKKOR Z 14-24



마그네틱 어댑터링 + 렌즈캡 + ND8 + ND64 + ND1000 + 필터 파우치

[EVENT] H&Y 마그네틱 ND 필터 112mm 키트 구매자에게
H&Y 마그네틱 어댑터링 82-112 & 95-112 증정!
어댑터링을 통해 82mm&95mm 렌즈에도 112mm 필터사용 가능!



H&Y Magnetic Adapter Ring 82-112 & 95-112mm



코리아포토프로덕츠_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층 T.02-3436-6775 | F.02-3436-6776 | AS안내 02-455-6775



Leofoto®

Wings of God

Leofoto **NEW** TRI-POD SERIES

가브리엘 (GABRIEL)



루시퍼 (LUCIFER)



코리아포토프로덕츠_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층 T.02-3436-6775 | F.02-3436-6776 | AS안내 02-455-6775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1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사진작가 전용 전시액자 쇼핑몰 **NAVER** 두진아트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원목액자(띄움원목액자는아트랩 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프리미엄 최고급 액자



캔버스랩&아트랩 원목띄움액자 / 뒷면(후면) 모습

캔버스랩&아트랩과 원목띄움 액자 교체모습

무반사 아크릴 디아섹 (독일제무반사 아크릴사용)



고광택 아크릴 디아섹 (국내산 정품 아크릴사용)



보급형 중저가 (45,000원대) 아크릴디아섹(국내산 정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가 중국산 품질주의 경보발령*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액자(띄움액자는 아트랩 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작품액자



아트랩 띄움액자 컬러 (우드,진밤,흰색,검정)

아트랩과 띄움액자 교체 분리 재사용

아트랩 띄움액자 뒷면

2022 제7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업체부 스 두진아트에서 최고품질의 최신 트렌드의 작품 인화와 액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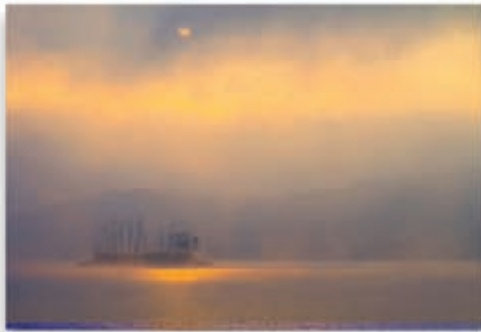
두물머리 황금빛 내림
長川 김기현 作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입체감과 질감”
지클리 프린팅 부드러운 색상의 재현
아트페블릭 인화 지금 경험해 보세요.

캔버스랩 & 아트랩



뷰라트 아트페블릭



흰색마감
이미지연장



좌측 아트랩 뒷면마감/우측 아트랩 옆면 흰색마감 이미지연장 선택

좌측 뷰라트 뒷면마감/우측 뷰라트 앞면과 옆면마감

“사진예술로 문화교류 확대”한 목소리

—본협회 김양평 이사장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면담

2022년 10월 20일 김양평 이사장과 유수찬 상임이사는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사미 알사드한 대사와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특별 초대전으로 전시된 사우디 알룰라 사진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대사 면담은 삼십 여분 이어졌다.

김양평 이사장은 “전시장에 방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진축전에 전시된 환상적인 알룰라 사진에 정말 많은 관람객분들이 감동받았고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가진 힘을 통해 양국의 문화가 교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내에 알리는데 우리 협회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사진을 통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사진예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작가님들이 방문하여 촬영하신 사진을 통해 새롭게 변한 열려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모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진작가들의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김양평 이사장,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유수찬 상임이사)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 기념사진과 작품집을 사미 알사드한 대사에게 전달하는 김양평 이사장



대화를 나누는 김양평 이사장(사진 맨 오른쪽)과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사진 가운데)



작품들도 사진축전 전시에 참가하며 사진을 통한 교류에 힘쓰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이날 면담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들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계

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신도시인 사우디 ‘네옌시티’ 까지 포함하여 전혀 새로운 장면을 작가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협회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대사와의 면담이 종료되었다.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Dadan city view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Hegra #2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Dadan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Hegra #1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Elephant Rock



©Prince Michel de Yougoslavie photographe_AI Ula_Dadan view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 보배의 섬 **진도**

“사진인 여러분, 진도를 알려 주세요”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 보배의 섬 진도에 관해 설명을 하는 진도군 김희수 군수

“ 사진작가 여러분께서 진도를 꼭 찾아주시고
다양한 사진예술 활동을 통해 진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보배 섬의 관광자원과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준 높은 사진 한 장으로 표현되는 효과는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



전국의 사진작가 여러분, 그리고 사진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도군은 아름다운 절경과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글자 그대로 보배로운 섬(珍島)입니다. 한반도 최 서남단에 위치하여 다도해의 오밀조밀한 섬들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관광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이처럼 진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의 혼이 깃든 곳이며, 청정의 농·수 특산물 등 사진작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 진도군은 다 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의 5대 혁신과제를 기반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는 임기 내내 군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많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도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작가 여러분께서 진도를 꼭 찾아주시고 다양한 사진예술 활동을 통해 진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보배 섬의 관광 자원과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준 높은 사진 한 장으로 표현되는 효과는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멋진 작품활동으로 일상 속에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사진예술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상 강병진_울림산방



입선 윤상준_출항



가작 김성순_빨간 구기자

2021년 진도관광사진전국공모전 보배섬 진도



동상 조태관_발가락손가락 섬의 노을



입선 조태관_동석산에서 바라본 가을풍경

금상 최진실_진도대교의 아침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

보배섬 진도

Jindo

■ 진도군 주요 관광지

진도타워, 진도해양에너지공원, 진도개 테마파크
운림산방, 신비의 바닷길(가계해변), 쓸비치 진도
세방낙조, 도리산 전망대, 관매도

■ 진도군 특산물

진도울금, 진도홍주, 진도대파, 참전복, 진도돌김

■ 진도아리랑 8미

간재미 요리, 울금수육, 꽃게 요리, 등복갈비탕
낙지 요리, 진도한정식, 바지락 요리, 전복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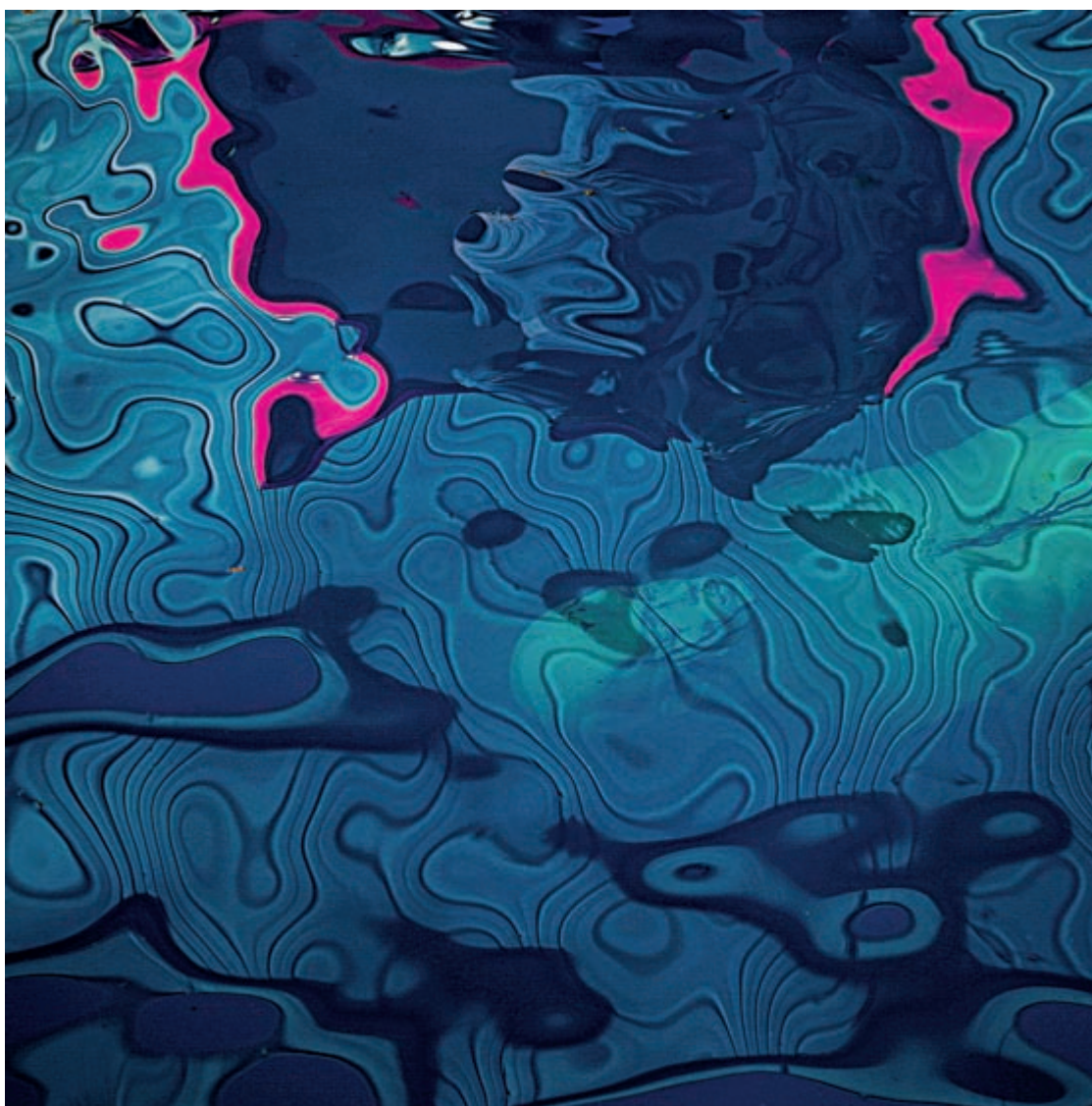


진도군 주요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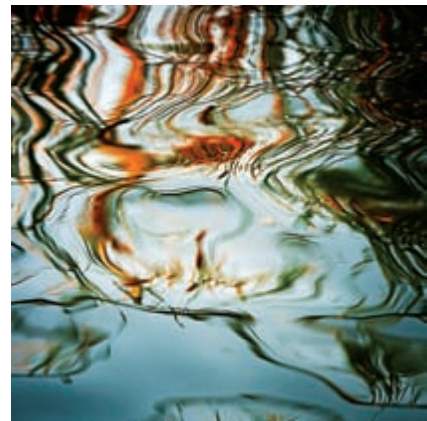
바람의 손길 스쳐간 곳에 '모네의 평화'
물 위의 풍경 a watery landscape

송진용(화성) 사진전



©송진용_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40x40cm, 2021

전시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 11월 20일(일)
 전시장소 : 노송갤러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내)
 전시오픈 : 2022년 11월 15일 오후3시
 전시작가 : 송진용



©송진용_ 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50x50cm, 2020

인상파의 아버지로 알려진 클로드 모네는 평생 빛을 동경한 빛의 화가였다. 모네의 색과 빛의 감성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여전히 매료시키고 있으며, 그의 광범위한 자연의 색과 빛의 작품은 햇빛이 비치거나 그림자가 있는 풍경과 움직임을 덧없이 포착했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물 위의 풍경' 사진 작업은 빛의 혼합과 빛의 표현이며 자연의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접근을 선호해왔지만, 자연의 마음을 읽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다. 결국, 자연의 진지함을 인식하기 위해 물 위에 비치는 풍경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긴 호흡으로 여전히 지금도 물 위에 비치는 풍경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 위에 비치는 변화무쌍한 풍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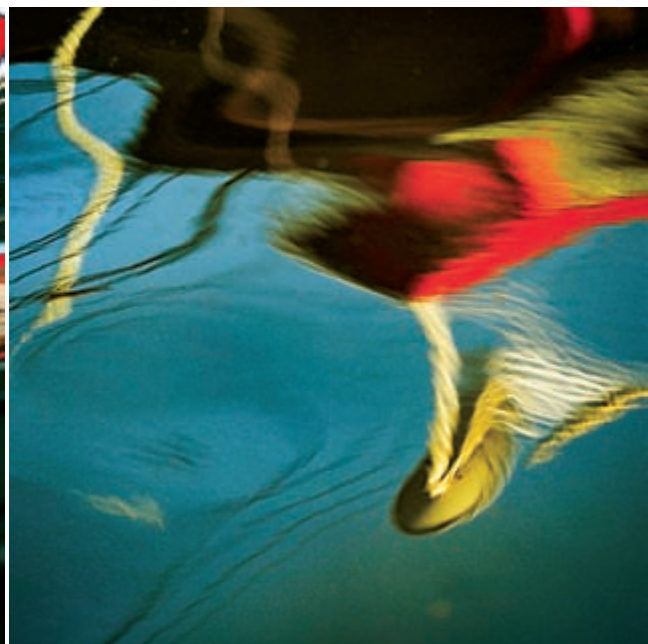
은 빛에 의해 변했고 색에 의한 변화를 내게 보여줬다. '물 위의 풍경'들은 마치 모네의 풍경처럼 내게 다가왔고 자연이 그려내는 풍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

'물 위의 풍경'은 놀랍도록 잔잔한 물결은 바람의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평화롭게 그려내고 있다. 삶의 본질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과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 고요함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의 편안함을 선사하고자 한다. 잔잔히 퍼져 가는 물결의 고요함이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은 넘치는 욕망을 끌어내고 평온한 마음을 얻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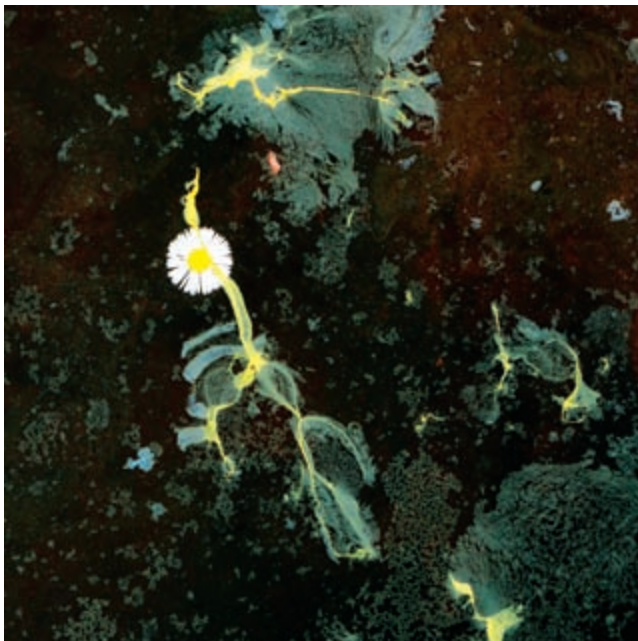
—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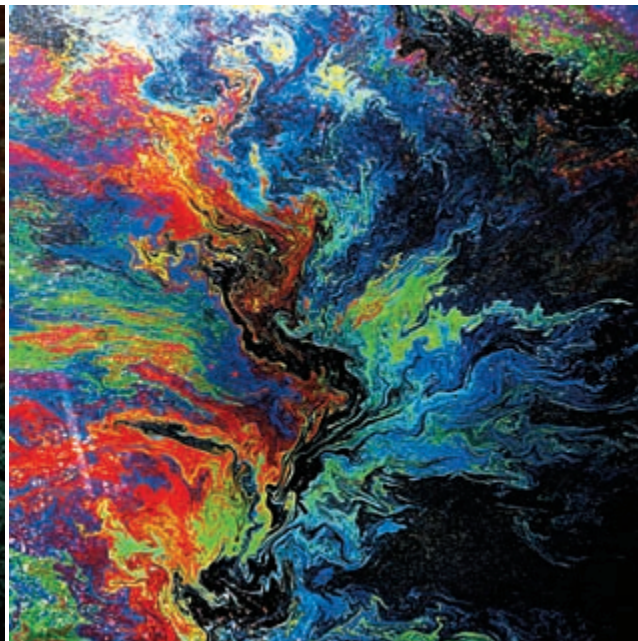
©송진용_ 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50x50cm, 2021



©송진용_ 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50x50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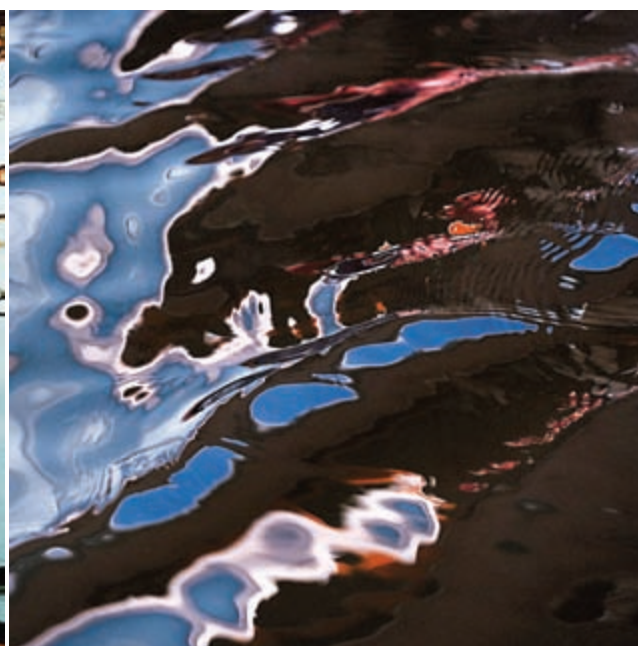
©송진용_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50x50cm, 2020



©송진용_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80x80cm, 2020



©송진용_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80x80cm, 2020



©송진용_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80x80cm, 2020



©송진용_ 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40x40cm,
2022



©송진용_ 물위의 풍경
inkjet print whitevelvet_40x40cm,
2021

연하고 은은한 그리움 찾아 핀홀 촬영

해바라기 (색의 유혹)

이상섭(강남구) 사진전



©이상섭_해바라기

전시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 11월 4일(금)

전시장소 : 아트갤러리(종로구 인사동길 35-4, 인사동 마루 본관 2층)

문의전화 : 02-2246-6087

전시작가 : 이상섭



©이상섭_해바라기

어릴 적 담장 가에 늘어진 해바라기를 그리워하며 만든 사진집이다. 사립문 밖에서 인가적이 나면 문구멍으로 바라보고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 때마다 해바라기는 상냥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울타리에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다. 종류별로, 개화 시기 별로, 나눠 심었고, 날씨가 무더워질 무렵부터 해바라기는 개화했다. “사진은 그리움이다”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땐 핀 홀 구멍을 통해 촬영했다. 작은 구멍 사이로 퍼지는 빛은 한 가운데에서 밖으로 얇은 색으로 퍼져 나간다. 연하고 은은한 그리움의 꽃 사진이 되었다. “색의 유혹”은 꽃과 배경색이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동이를 무렵에 촬영했다. 선명한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을 배경으로 꽃의 색을 가능한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정물’ 사진은 나도 모르게 틈틈이 모



©이상섭_해바라기

으게 되었던 화병 10여개를 활용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조명을 통해 촬영을 했지만 원하는 색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바람이 없이 고요한 새벽 시간대에 야외에서 자연광 촬영을 하게 되었고, 황토 바탕색으로 흙의 느낌도 담았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는 두 번이나 연기되었다. 세 번의 시도 만에 전시와 사진집 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이 나를 해바라기로 이끌었다. 1,000일 남짓의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다. 해바라기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다. 그래서 고된 작업도 늘 흥미롭게 느껴졌다. 스튜디오 안에서, 화단에서, 해바라기들은 촬영을 기다리는 모델이 되어 나를 기다려 주었다. 사진 작업에 참여해준 해바라기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상섭_해바라기



©이상섭_해바라기



©이상섭_해바라기



©이상섭_해바라기

꽃내음 가득한 경이, 동양화 속으로

五色圖苑 오색도원

2022 갤러리 웰 초대전 권 순 중(포항)

고정관념을 버린 시각의 변화를 예술적인 차원으로 표현해 본다는 건 어렵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사진에서 그림으로 이어지는 작품들이 그려져 갈 때마다 나의 영혼은 춤추었고 기쁨 또한 함께 했다.

봄이 오는 소리에 남쪽에서는 매화 소식이 전해지고 한복의 동양화들이 그려졌다.

찬란한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었고 소박하며 화사한 봄의 요정들을 만났다. 돌담길 길목에는 개나리들이 반가이 미소를 지었고, 봄이 익어가

노래하며 유혹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도취되었고 그 향기에 취하여 꽃들의 연가를 만끽할 즈음에는 이팝이 그리는 그림 속 그림들을 함께 그려 나갔다.

다시 올 그날들을 기다려 가는데 감들이 익어갔고 아뉘와 함께 기쁨과 설렘이란 느낌도 함께했다.

꽃 내음 가득한 비경 속의 그림 같은 오색도원전으로 초대합니다.

— 작가노트



©권순중_감나무 圖

전시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 12월 15일(목)

전시장소 : 갤러리 웰

(포항시 남구 행복길75번길11 호텔영일대)

전시작가 : 권순중



©권순중_요정들의 정원



©권순중_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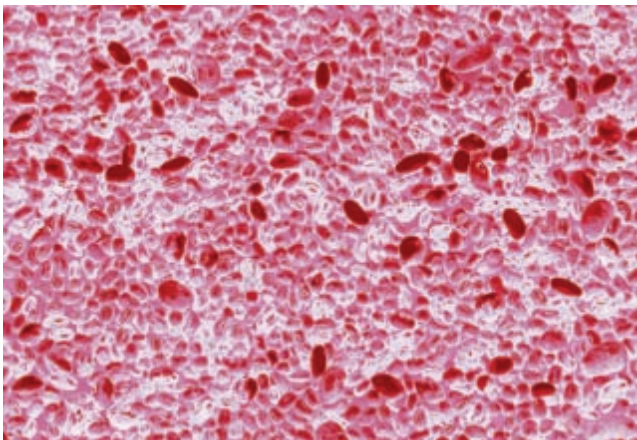
©권순중_탄생(誕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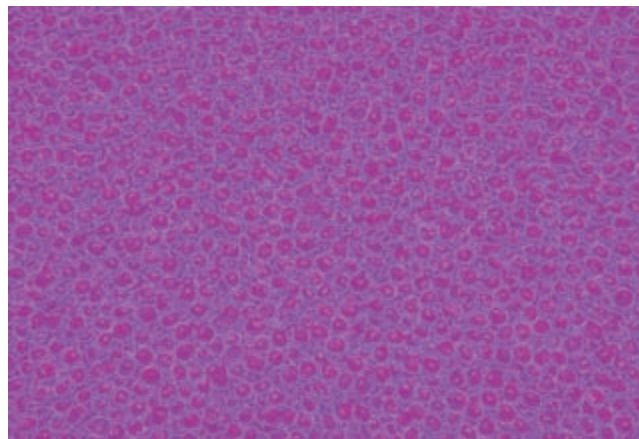
©권순중_ 천상으로 가는 길

영속하는 생명물질 디지털리즘에 담다 ‘색에 잠긴 형태들’

서 성 강 (천안)



©서성강_강남콩과 작두콩



©서성강_병아리콩

한 톨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농부는 그 한 톨의 곡식을 만들기 위해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따뜻해질 시점에 땅을 갈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그렇게 길러낸다.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그 정성은 곡식의 성장에 필수 요소다.

농부가 곡식에 물두하는 이유는 그 곡식이 삶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알의 씨앗에는 유전자가 담겨 있다. 유전물질을 간직한 씨앗 하나가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비록 우아한 형체는 사라졌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영속하는 삶이 바로 유전자에 있고 그 유전물질을 간직한 한 알의 씨앗이 농부의 삶을 보장해 온 것처럼 디지털 사진의 픽셀은 바로 종자의 유전자를 닮았다.

디지털은 인간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고, 그것을 최근에 와서 디지털리즘이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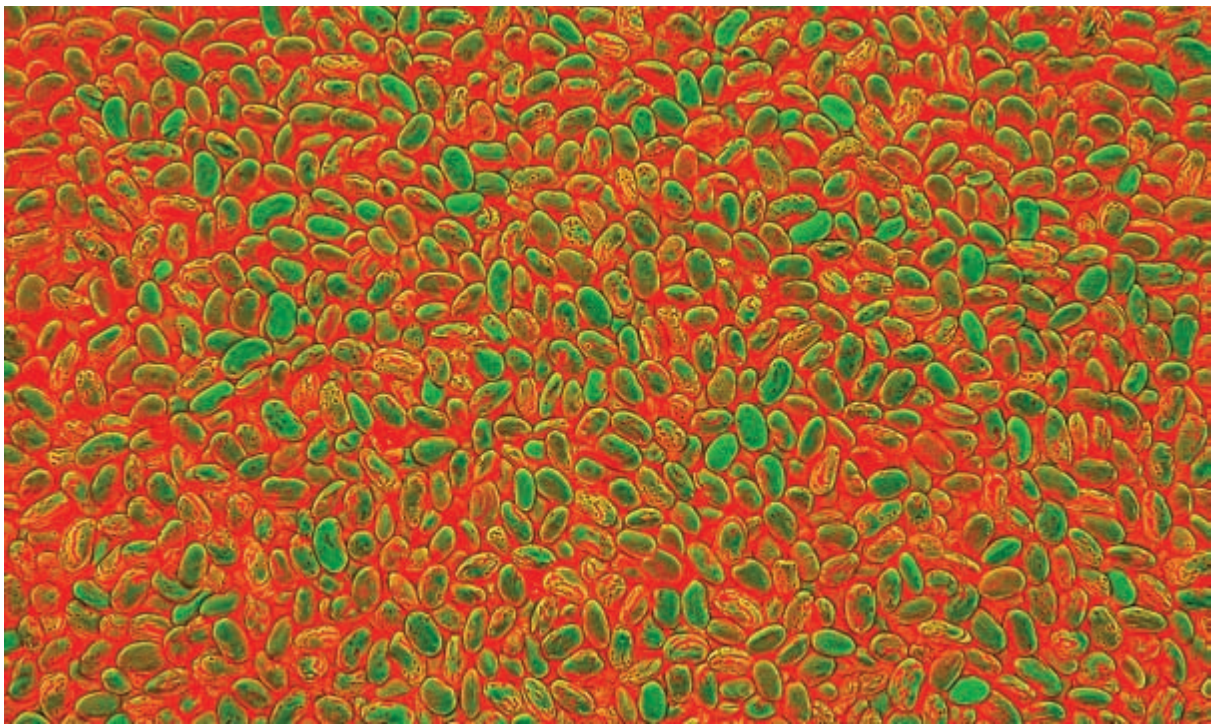
디지털 사진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픽셀의 이상적인 수치를 넘나들며 나는 사진을 회화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W. Eisner)는 ‘과학은 의미를 진술하고 예술은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했다. 즉 과학에서 사용하는 피사체는 표상이며, 예술에서 사용하는 피사체는 작가의 내적 사고를 반영한 표현이라는 뜻이다.

나는 현실을 사진으로 변환하는 과학에서 현실을 표현하는 예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나의 작업을 디지털리즘에 함축시키는 것이다.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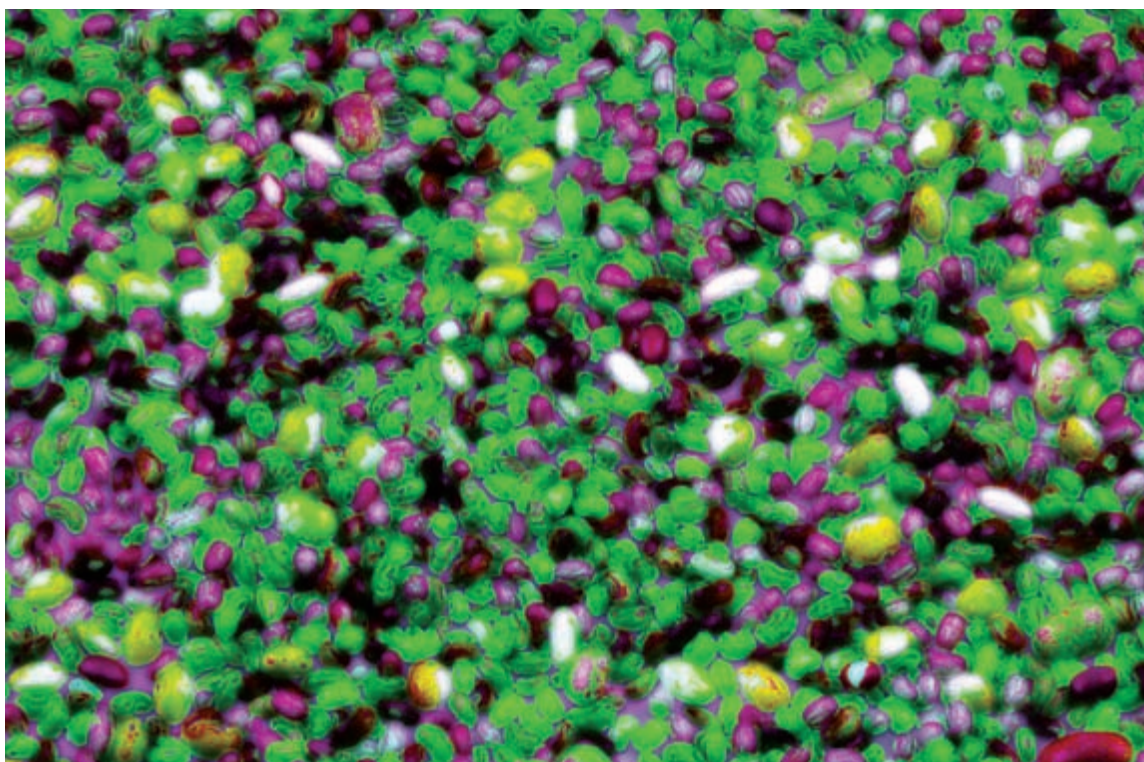
©서성강_강남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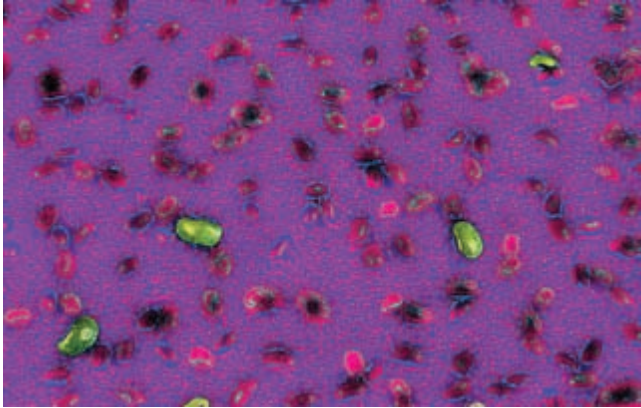
©서성강_강남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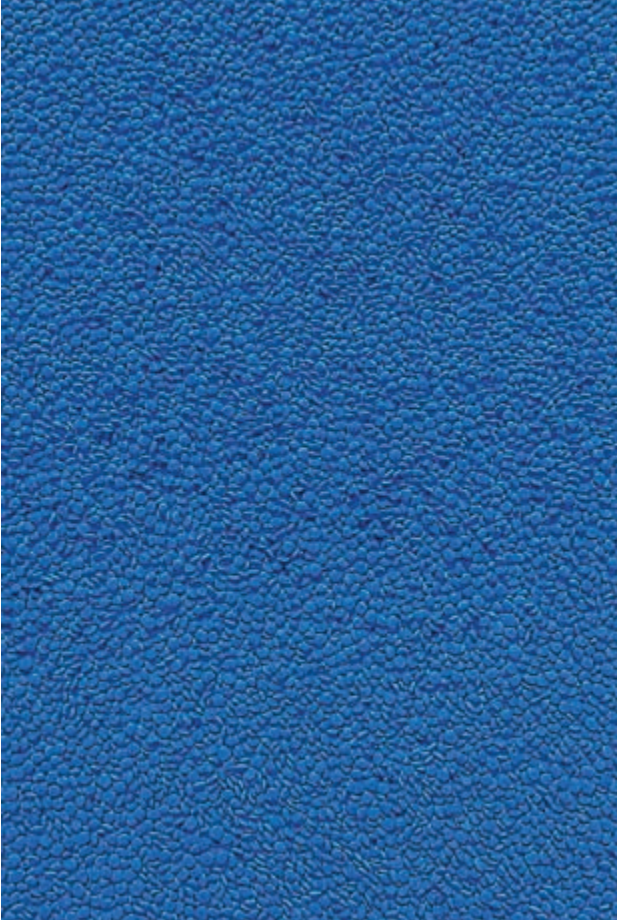
©서성강_ 쥐눈이콩 배경에 종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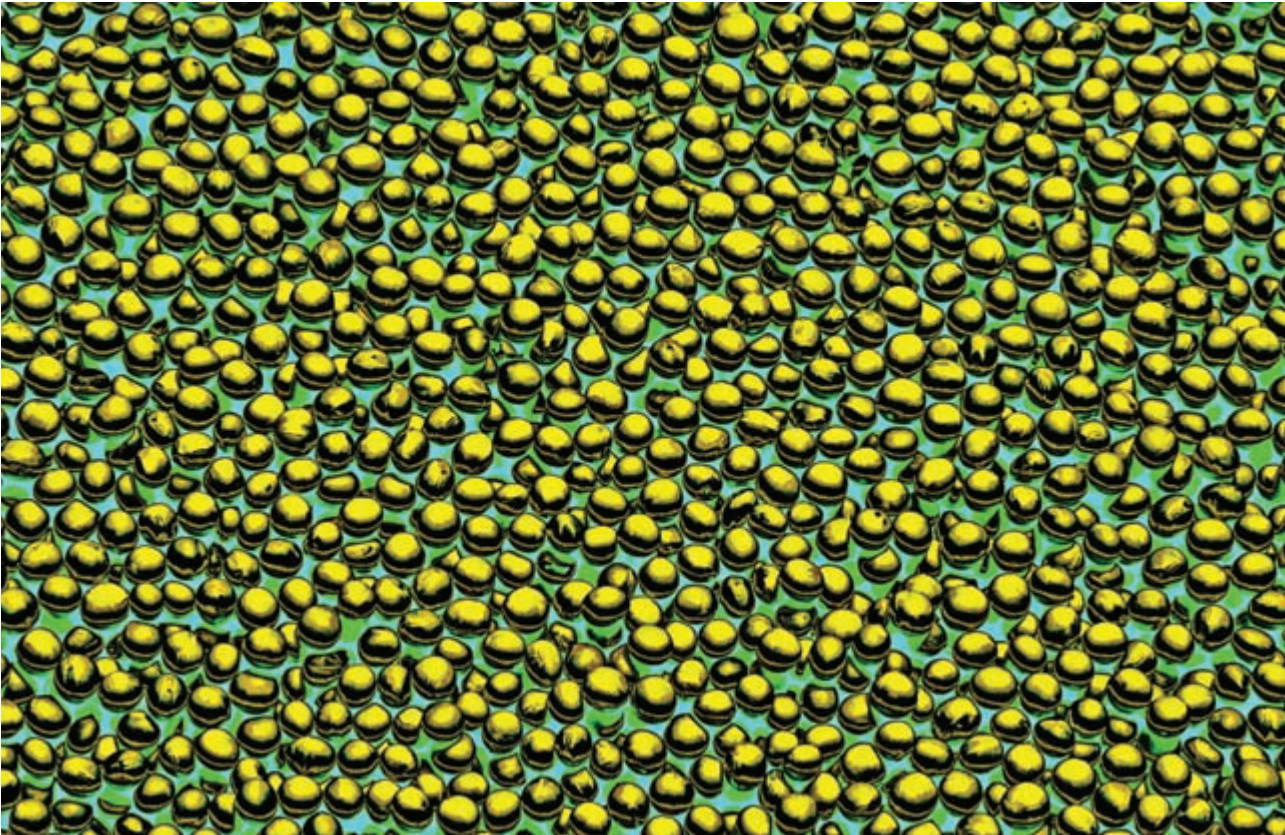
©서성강_ 팔 동부 강나남콩 작두콩



©서성강_ 쥐눈이콩 배경에 강낭콩과 작두콩1



©서성강_ 렌틸콩1-3



©서성강_ 서리태2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잊힌전설**

Return to the lost territory...The Forgotten Legend

박 경 서(중구)



©박경서, 잊힌 전설,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박경서_ 잊힌 전설,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동같은 앞 다리, 동아 같은 뒷발로...범 내려온다는데 이 땅에 무수한 얘기를 남겼던 그대여 어찌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찌하다가 잊힌 전설이 되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던 날 신단수에서 시험받을 때 곰과 달리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건디지 못한 것은 운명이었겠지요. 비록 사람이 될 만한 성정을 지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대 백두산 호랑이는 한민족 가슴 속에서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때로는 친근함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들과 울고 웃지 않았던가요?

전설은 살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 정체성을 잃었던 때 이 강토가 유린당할 때 그대도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지고 전설이 되고 말았었지요. 정호균이란 이름으로 위해 조수 구제한다는 구실을 붙여 일제가 조선의 기운을 멸살해 갔을 때, 그대 조선 범은 터전을 잃고 유리하는 조선인처럼 찬바람 부는

동토로 숨어들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그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호랑이는 이 땅을 벗어났을 뿐 그 씨까지 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백두산 주변 호랑이동원물에서 많은 숫자의 호랑이가 제공되는 음식으로 사육 관리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대 산신령 오고가던 생태환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도 서글픈 일입니다. 남북의 허리가 끊겨 오고 가지를 못하는 이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이 다시 연결되고 그대 산군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험한 기백이 백두산과 아무르 강과 시베리아의 신령한 기운으로 이 강산을 채울 때 다시 포효하지 않을까요?

그 찌렁찌렁한 포효가 산을 울리고 전설을 만들어 내던 산의 신령이 이



©박경서_ 잊힌 전설,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박경서_ 잊힌 전설,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강산에 다시 자리 잡을 때 우리도 새 역사의 무대가 될 것이란 생각이
촬영자만의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큰 힘과 산신령의 지위를 가지고도 토끼에게 당하고 별주부에 속아
넘어가는 우직하고 여유로운 해학으로 한민족을 즐겁게 했던 그대 산중

호걸이여! 한국호랑이의 담대한 표정이 아침 백설에 빛나고 상서로운 기
운이 되어 이 강산의 주인으로 돌아올 때가 지금 아닐까요,
태초의 그날처럼 만물도 화평할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카메라에 의지하여 영험한 전설을 회고하여 봅니다.

먼길 발걸음 멈추고 소리없이 ‘공감’ 자작나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만 우(대구)



©이만우_ 전시장 전경

사진작가 이만우는 인간의 발걸음에 차이고 짐승들의 이빨에 패어도 묵묵히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인간의 삶을 떠올렸다. 특히 흰 껍질에 지나온 삶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작나무에 마음을 빼앗겼다. 지난 10여년간 자작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갔다. 그가 “자작나무도 인간과 대등한 생명체”라며 “모든 생명은 자연의 일부로 평등하다”는 세계관을 피력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작나무의 삶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숙연함마저 느꼈어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이지요.”

대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에서 사진작가 이만우 개인전인 ‘자작’전이 한창이다. 자작나무 작품 20여 점과 작업과정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 작품활동 40여 년, 몽환적인 소나무 사진 작업에 매진하던 그가 자작나무에 마음을 빼앗긴 건 10여년 전이다. 소나무를



©이만우-그 자리에 있을 때-땅의 경계 시베리아 러시아



©이만우-애절한 자작나무 군락 강원도 정선

촬영하기 위해 강원도 응봉산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자작나무를 발견하게 됐다.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 속 자작나무 군락을 보는 듯 했다”는 것이 당시의 마음이었다. 몇 시간을 홀린 듯 자작나무에 발걸음이 멈췄고, 그때부터 변심이 시작됐다. 소나무에서 자작나무로 피사체의 변화가 시작됐다.

막상 자작나무에 홀렸지만 2~3년간은 촬영은 뒷전이였다. 오직 자

작나무 숲만 찾아 다녔다. 자작나무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각이 생성됐고, 자작나무와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로까지 발전됐다. 특히 영화 35도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설원에서 칼날 같은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애절한 자작나무의 모습과 맞닥뜨리면서, 자작나무는 그의 전부가 됐다. 자작나무들 사이에서 마치 가족을 보호하려는 듯 홀로 바람과 맞서고 있는 강인한 자작나무가 가장의 무게에





©이만우-홀로 선 자작나무 강원도 평창

짓눌려있는 인간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 순간, 셔터 누르는 소리가 눈보라를 밀어내고 있었다. 촬영이 시작된 것이다. “폭풍을 피하지 못하는 운명의 자작나무 가족이 처연해 보였어요. 고통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작나무가 있는 곳이면 여지없이 그의 발길이 닿았다. 국내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국의 난징, 중국 북쪽과 외몽고의 남쪽 접경지인 내몽고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어디에 있는 자작나무 숲은 이제 그의 앞마당처럼 훤히 정도로 친숙해졌다. 국내의 경우 펄프회사에서 종이 생산을 위해 조성한 인공적인 숲이 대부분이어서 날 것의 맛이 부족했고, 자연 그대로의 자작나무를 찾기 위해 시베리아나 내몽고로 떠났다.

“시베리아나 내몽고의 자작나무 숲은 영하 30~50도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와 광활하면서 척박한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날 것의 처연함이 있어요. 자작나무의 삶의 흔적이 더 드라마틱하죠” 척박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햇빛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인다. 그 흔적들이 굵은 가지에서 싹틔줄처럼 뻗어나간 잔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에 오롯이 드러나는데, 그는 그 치열한 삶이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낮의 강렬한 햇살이 찾아들고 어린아이 피부 같은 연한 햇살이 비치는 해지기 직전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 위풍당당한 자작나무의 피부 한 올 한 올까지 담아낸다.

“어떤 사진을 찍겠다고 계획하고 떠나지는 않아요. 다니다 그날의 자연환경과 저의 감성이 일치하는 나무를 만나면 그 때 촬영이 시작되죠. 자작나무의 모습에 담긴 흔적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다니는 양에 비해 마음에 드는 사진의 양이 적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번 전시에 걸리 아사 직전의 자작나무에서 그의 연민이 묻어난다. 시베리아 자작나무 숲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난 나무였다. 바다 같은 드넓은 시베리아의 텔레츠크 호숫가에서 뿌리의 일부만 겨우 땅에 닿고 몸통은 땅에 쓰러져 있는 자작나무였다. “죽은 것 같았지만 분명 8년을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안개가



©이만우-회복을 바라며 자작나무 강원도



©이만우-전시장 풍경

끼여 촬영을 할 수 없어 일주일을 기다렸죠. 마침내 안개가 걷히는 순간 강한 일출빛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는 폭풍에 쓰러진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작나무에서 자신의 힘든 시절을 떠올렸다. 쓰러진 자작나무와 그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둘 사이에서 영적 공명을 경험했다.

그의 자작나무는 한 편의 시처럼 서정이 넘친다. 사진이라기 보다 그림에 가까울 정도로 몽환적이고 회화적이다. 자연의 색을 최대한 수용한 덕분이다. 다중 촬영이나 색조절, 포토샵의 절제 등의 방식을 통해 그는 자연색에 다가가려 최선을 다한다. 자연적인 색을 찾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몫이라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미 사진을 촬영할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촬영 후의 그 어떤 부가적인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빛이 사진의 질을 좌우하지만 그의 빛

사랑은 유난스럽다. 빛에 관한 ‘박사’라고 할만큼 빛을 현히 꿰뚫고 있다. 아기 피부같은 빛에서 청년, 중년, 노년의 빛 등 다양한 결의 빛들과 자작나무 특유의 기세를 연결 지으며 그림 같은 사진을 얻는다. 높은 서정성에는 그이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사진을 인문학의 도구로 생각한다. 자작나무에 생명 경외와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이입한다.

“새하얀 아기 피부 같은 빛에서부터 검고 거친 할머니 피부 같은 빛까지 모든 빛은 사진작가에게 중요합니다. 저의 감정 상태에 따라, 피사체 인지 자작나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원하는 빛을 포착하게 됩니다.”

글_대구신문 황인옥 기자 제공



©이만우-전시장 풍경



©이만우-전시장 풍경

2022 평택사진축전 ‘바깥전’ 리뷰 작가전 심사를 마치고 “두려움 없는 시도… 창의성 돋보였다”

심사평_박이찬(사진매체 편집자)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경험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 용기 있는 주제가 평택사진축전 ‘바깥전’ 전이다. ‘바깥전’ 전시의 매력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에 있다. ‘바깥전’전은 아트페어와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의 관계성 즉, 예술적 경험치를 늘려가고 있다. 포트폴리오 리뷰는 전시의 준비과정에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비평의 과정은 작가의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관객과 소통하기 전에 작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감각, 개성, 작업태도 및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개인의 포트폴리오에는 객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작품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고 작품에 매진한 시간과 공간적 흐름을 통해 작품의 이야기와 의미있는 시각적 표현을 전한다는 작가의 소신,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낼 새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리뷰의 경험은 참여자 모두에게 개인적 역량을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김효정은 시공간과 이미지의 현재와 과거 사이, 지각 기억 사이, 혹은 현실과 잠재 사이의 식별 불가능한 관계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형태로 시각적 확장이 더는 연결되지 않을 때, 시간이 흐름은 진행될 수 없고 시각적 감성을 분리하는 사실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드러나는 그녀의 시각적 태도에서는 물상의 상실을 통해 구체화 된다. 바다의 수평선들은 단순히 보이는 흔적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으로 실재하는 잠재성의 의미를 지닌 시각적으로 감춰진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바닷물 속으로 감춰진 바닷가의 다양한 물상들의 형태에서 ‘미메시스’의 공간으로 그리고 드러내는 잠재적 접점의 시각들은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김효정은 잠재적 접점을 ‘미메시스’의 공간을 통해 과거와 상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개인의 장소를 드러냄으로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공간 사이의 접점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 자아를 되찾아 가고 있다.

시각적 중심(물상)이 서서히 사라져감이 어떻게든 과거의 다양한 장면

들을 드러내며 현재의 순간들로서 포착된다. 이 두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시간과 관계들이 시간-이미지의 두 형태에서 감지되고 가시화됨을 자서전적 기억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배정옥의 특별한 이야기를 주목하자, 작가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자신으로부터 파생하는 서사 구조에서부터 서서히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개인으로 관심을 돌린 이후, 현대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의 삶과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그들의 삶의 상태를 분리된 서사들이 묶음이라는 새로운 서사구조로 표현하게 되었다. 작업에서 보이는 ‘삶의 옴니버스’의 여정은 무생물의 대표적 상징인 마네킹이 대신하고 있는데 이 마네킹의 출현은 작가 자신을 대신하는 아이콘이다. 또한, 이 아이콘은 작가 자신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주연배우인 작가 자신을 1인칭인 배우로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적 개입을 의미하고 있다. 감독의 시선 즉, 사진가의 시선은 어쩌면 가학적이고, 해롭고, 내면화된 고민의 과정을 비판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있다.

장성숙의 가면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간단한 도구이다. 가면을 쓴다는 행위는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회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면에 감춰진 자아’는 잠시나마 나의 본성을 감추고 일탈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와 사회의 관계에 신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마치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삼고 이 대상이 서서히 사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어받아 점차 우리 자기 사고의 지배되는 일탈의 경험, 그것과 같다.

‘가면에 감춰진 자아’의 사진 작업은 아방가르드의 개념처럼 미학적 혁신의 내면을 포함하는 전위적 퍼포먼스를 동반한다. 이는 우리 내면의 진짜 얼굴은 또 다른 가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면을 쓰고 펼쳐지는 행위는 ‘익명성’을 빌려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내 작업의 행위, 그것들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아방가르드가 예술의 과정을 모방한다면, ‘가면에 감춰진 자아’는 예술의 효과를 모방하고 있다. 이는 아방가르드가 의도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가면의 감춰진 자아’는 우연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김효정 - 회색의 바다 번민과 위안 사이... 도돌이표처럼

회색은 흑과 백의 중간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함이다. 나의 마음을 담아 준 바다는 깨달음까지 주었지만 내게는 여전히 걷히지 않은 안개 같은 번민이 자리 잡고 있다.

살다보면 누구나 힘들어도 넘어야 하는 시련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힘든 일상 속에 주말이면 근처 섬을 찾으며 촬영하는 게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섬 촬영의 시작이다. 그러던 중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 나의 모습들이 내 사진 곳곳에 숨어 있었다.

섬의 사진이 아닌 내 상실의 기억으로 이번 포트폴리오는 작년 개인전에서 적당히 타협했던 풍경사진류를 정리하고, 나의 느낌에 집중하며 섬세하게 느끼고 표현하려 하였다. 해 그림자조차 짙어지고 못하는 앙상한 나무,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방향을 알 수 없는 구름이 반영은 상처 난 자아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번에는 시선을 점 넓혀 바다의 흐름에 내 마음을 담아본다.

밀물과 썰물로 감추었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노숙길, 부족하면 차오르고 넘치면 내어주길 반복하며 결국은 하나가 되는 바다를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 상실의 마음도 내 안의 존재하는 마음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다시 그 자리에... 내 맘은 항상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된다. 번민과 안심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회색의 바다처럼.



©김효정_회색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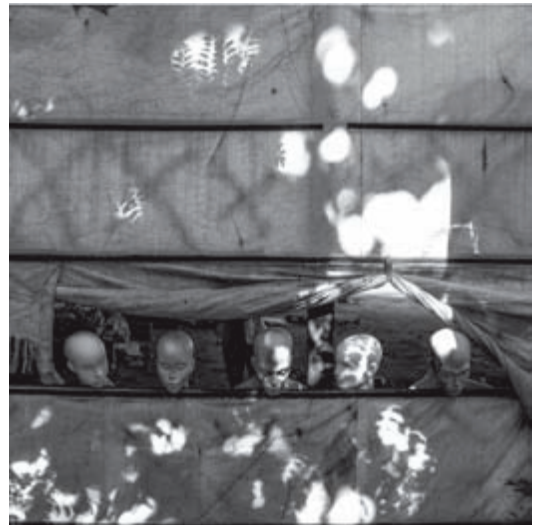


©김효정_회색의 바다

배정옥 - 삶의 옴니버스 the omnibus of life 욕망 감춘 무표정서 발견한 삶의 여정



©배정옥_삶의 옴니버스



©배정옥_삶의 옴니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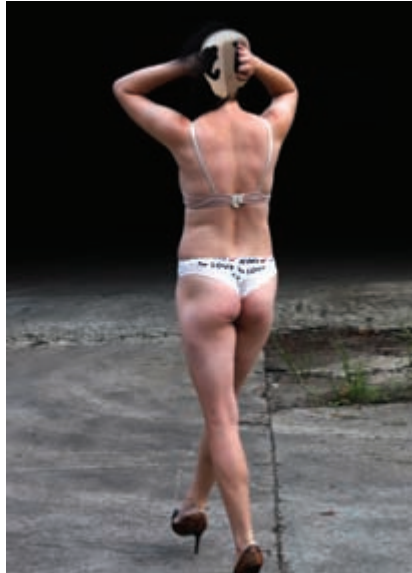
인간으로서 우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가 한 번 쯤은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에 대해 더 철학적인 욕망을 포함한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 일련의 특정 영화, 책, 실 생활 이야기, 종교적 텍스트,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여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이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 특별한 사고의 영감을 얻는다. 나의 '삶의 옴니버스'의 여정은 무생물의 대표적 모델인 마네킹이 대신하고 있는데 나의 여정을 대신하는 마네킹은 자신의 무표정한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삶의 옴니버스'의 사진 작업으로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감추고 있는 동반자인 마네킹에게 감정과 욕망을

그려주고 싶었다. '삶의 옴니버스'에서 자아의 직접적인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것처럼 지성이 아름다움에도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하는 지성을 통한 아름다움 삶의 경험은 여기에서도 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지난 에세이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여기에서 내 삶의 여정이 아름답기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 할 수 있는 구조에 기초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를 대신하는 마네킹의 생명이 선행과 아름다움 사이에 밀접한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이 '삶의 옴니버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인 그거, 즉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옴니버스'에 있는 진리의 기초가 되고 그 안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성숙 - 가면에 감춰진 자아 얼굴 가리고 내안에 나를 찾아간다



©장성숙_ 가면에 감춰진 자아



©장성숙_ 가면에 감춰진 자아



©장성숙_ 가면에 감춰진 자아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며 실험적으로 대담하게 경계를 넓히면 변화를 일으키는 예술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가 아방가르드이다. '정찰대', '선 봉대'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용어는 선견지명이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특성은 현대예술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때로는 잘못 인용되는 예도 있다. 이런 잘못된 인용의 예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아방가르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술의 관점에서 아방가르드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미학적 혁신과 관련이 있다. 동시대 주류 예술집단의 생각과 해석에 반대하는 창작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며 간혹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자주 결을 달리해 사용되지만, 여전히 전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 가면 아래 익명성, 가면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간단한 도구이다. 가면을 쓴다는 행위는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회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면의 속성은 인간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자아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힘을 이용하는 오늘날 가상 현실의 또 다른 자아의 본성을 일탈하는 개념의 시대 버전과 같다. 나의 사진 작업 '가면에 감춰진 자아'는 잠시나마 나의 본성을 감추고 일탈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와 사

회의 관계에 신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우리의 실제 성격과 가면 속에 표현된 성격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상호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산하기 시작한다. 마치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삼고 이 대상이 서서히 사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어받아 점차 우리 자기 사고의 지배되는 일탈의 경험, 그것과 같다.

'가면에 감춰진 자아'의 사진 작업은 아방가르드의 개념으로 미학적 혁신의 내면을 포함하는데 나는 사진작업에서 전위적 퍼포먼스를 동반한다. 이는 우리 내면의 진짜 얼굴은 또 다른 가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의 개념이 무의식을 설명한다면 나는 의식을 설명한다. 가면을 쓰고 펼쳐지는 나의 행위는 '익명성'을 빌려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내 직업 행위, 그것들은 개인적인 해석이나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남기고자 한다. 아방가르드가 예술의 과정을 모방한다면 '가면에 감춰진 자아'는 예술의 효과를 모방하고 있다. 아방가르드가 의도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가면에 감춰진 자아'는 우연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벼룩시장 떠돌던 작품... 알고보니 거장의 '숨씨'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

글 · 사진제공_김재훈(종로구지부) - 사진가, 전시플래너, 프린트마스터



뉴욕, 1954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장소 미상, 날짜 미상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2007년 역사책에 쓰일 과거 거리의 사진을 찾기 위해 집 앞 경매장을 찾은 아마추어 역사학자 '존 말루프'는 그곳에서 인화되지 않은 필름 수십만 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380달러에 낙찰받게 된다. 사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오직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름 뿐이었다. 바로 '비비안 마이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자 그는 필름 일부를 스캔한 뒤 자신의 SNS(Flickr)에 올렸고,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녀의 사진에 열광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녀의 사진은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트 프랭크, 헬렌 레빗, 다이앤 아

버스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세계에 '비비안 마이어' 열풍을 일으킨 것은 물론,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 픽피씨앤엠

8월 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그라운드시소 성수'에서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의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비비안 마이어의 전시회로는 최대 규모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프랑스 파리의 뤽상부르 뮤지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의 토리노 왕립박물관으로 이어진 유럽에서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11월 13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의



뉴욕, 1953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첫 번째 전시이다. 이 전시는 스페인의 전시기획사의 큐레이터 '앤 모랭 (Anne Morin)' 과 '그랑 팔레(Reunion de Musees Nationaux - Grand Palais)' 의 공동기획으로 시작되었는데, 영화, 사진, 미술 등의 분야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의 문화 예술을 조명하는 '케어링(Kering)' 의 프로그램인 '우먼 인 모션(Women In Motion)'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비안 마이어가 오랜 시간 찍어 온 사진들 중 직접 인화한 빈티지 사진과 희귀한 컬러사진, 그리고 그동안 공개된 적 없었던 사진들을 포함한 270점 이상의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와 '슈퍼8 필름(Super 8 Film)' 형식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소장품인 카메라와 모자도 함께 전시된다. 필자 역시 2015년에 성곡미술관에서 개리 위노그랜드와의 동시 사진전이 개최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으며, 1960년대

의 급변하는 미국에서 전혀 다른 인생 속에서 사진을 해 온 두 작가를 비교하며 여기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인생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성곡미술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도움이 되겠기에 여기에 옮긴다.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이어는 1951년 뉴욕으로 돌아와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마이어는 1956년 시카고에 정착한 이후 200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카고에서 보모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다. 그녀는 30년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틈틈이 찜을 내어 코닥 브라우니 박스 카메라와 롤라이플렉스, 라이카를 목에 걸고



센트럴파크 동물원, 뉴욕, 1959년 9월 26일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시카고, 1960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캐나다, 1955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뉴욕공공도서관, 1954년경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마이어가 돌보았던 아이들에 따르면, 그녀는 교양 있고 열린 사고의 소유자로 관대하면서도 무뚝뚝했다고 한다. 마이어의 작품에는 일상 속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호기심과 행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배어있다. 표정, 태도, 옷차림, 유행하는 액세서리와 소외계층의 삶에 관심을 보이며, 물레 찍은 사진과 실제로 만나서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한 가운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2009년 4월 마이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망했다. 그녀는 19년 가까이 겐즈 버그 일가에서 보모로 일했으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이어의 소지품 대부분과 필름은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연체된 창고 비용으로 인해 2007년 압류당한 후 존 말루프에게 팔린 것이다. 비비안 마이어는 행정서류상 오스트리아계 헝가리

인이자 프랑스인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프랑스의 오토잘프의 상소르와 아시아, 미국에서도 그녀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사진에 입문하게 된 배경과 예술가로서의 행로는 알아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들은 그녀의 사진들이 보관소에서 벼룩시장에 팔렸고,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구매했다는 우연의 연결들이 필연처럼 이어졌기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하지 않는 마음으로 촬영한 사진들이었고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는 일로 살아가면서 그 따분한 일상의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변화와 아름다움들을 찾아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과 노력들은 그녀의 작업물들에 고스란히 스며들었고, 관조적이면서도 깊은 지아가 투영된 사진들은 작가의 설명 한마디



시카고, 1971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o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없이도 전문가부터 대중들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사진작업은 사진으로 현상되고 보여져야지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면서도 사진을 전시하고 보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진작업은 시도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까지의 기획이 완료되고 전시가 끝나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전시란 오랜 시간 노력한 내 작업의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선보이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내 자신이 '이게 최선이다' 라고 인정된 후에야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력의 프로필을 늘리는 것에 급급해 하거나, 현상한 결과물의 확인조차 없이 공장에서 작품을 완성시켜 버리는 모습 등은 자신의 작업과 작품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진가의 프로필을 가질 수 있을 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성찰과 깊은 완성도를 위해 고민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고 인정받는 좋은 사진들을 많이 해서, 일생 단 한 번의 전시일지라도 후회없는 최고의 전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중요했던 한 사람의 사진작업들을 통해 내 사진 작업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전시를 소개한다.

Canon

‘사진전은 전시전문가와 준비하는 겁니다’

파인아트 프린팅

사진의 품질은 작가가 아니라
프린트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같은 사진가의 눈으로 상담하고
프린트한 작품에 책임을 집니다.

사진전시 컨설팅

전시작품의 선택과 보정부부터
포트폴리오, 홍보, 작품제작,
디스플레이 및 전시 철수 까지
전시의 모든 것을 상담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22-1번지 2층 김재훈 010)9916-8814, 02)6081-0221

사진하다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칭인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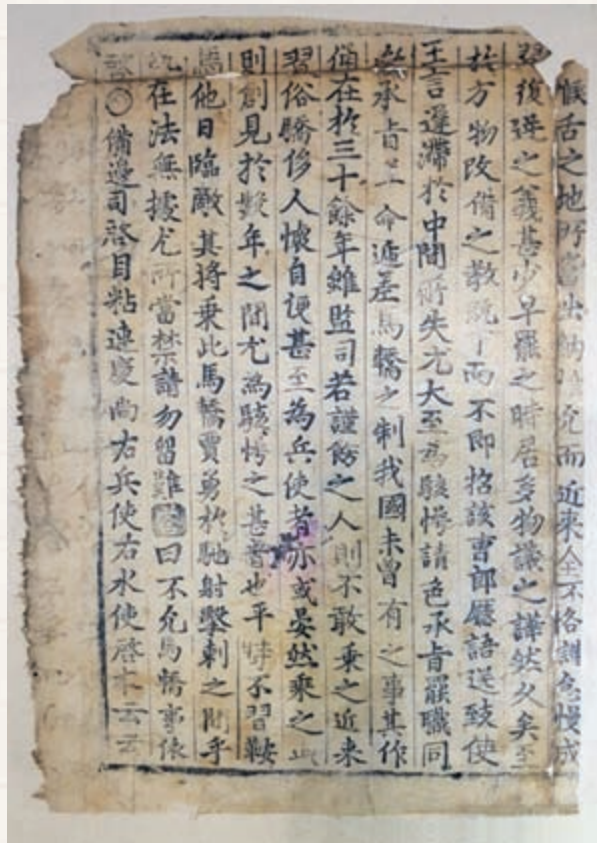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세계 최초의 신문 탄압하고 망국의 길로... 유럽과 달랐던 조선의 보도통제

글·사진제공 _ 최승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 언뜻 유럽이나 미국쯤 아닐까 생각되지만 의외로 세계 최초의 신문을 만든 나라는 조선이었다. 미국의 언론학자 미첼 스티븐스 교수가 제시한 신문의 조건을 보면 정기적인 정보의 전달, 기사의 수가 다양할 것, 일관성을 갖춘 일련번호 혹은 매일 발행 날짜가 표기되어야 할 것 등이다. 조선의 조정에서 사람의 손으로 써서 발행한 조보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문의 기준에 딱 들어 맞는다. 매일 아침 승정원에서 발행해 날짜를 기록했고 천재지변부터 임금의 전교 내용까지 여러 분야의 기사 수록했기 때문이다. 이 조정의 조보를 베낀 후, 민간에서 활자를 사용해 다량으로 발행해 돈을 받고 팔았던 활자조보는 이런 의미에서 필사조보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세계 최초의 신문이다.



영천에서 발견된 활자신문 조보

선조 10년, 1577년에 발행된 활자를 사용해 민간에서 발행한 활자 조보는 유료구독자가 있었으므로 세계 최초의 상업신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조정에서 발행한 필사조보는 정부관료들에게만 배달되었고 흘려쓴 글씨체 때문에 때로는 읽기가 어려웠다. 영천에서 발견된 세계최초의

신문조보, 1577년 목활자로 인쇄되었다. 이때문에 활자조보는 3개월 정도 발행되다가 말았지만 당시 정보가 필요했던 사대부계 층이나 민간에게 절찬리에 판매되었다.

필사조보는 정부기관지 같은 것이므로 이 형태는 동서고금에서 발행된 역사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것을 근대 신문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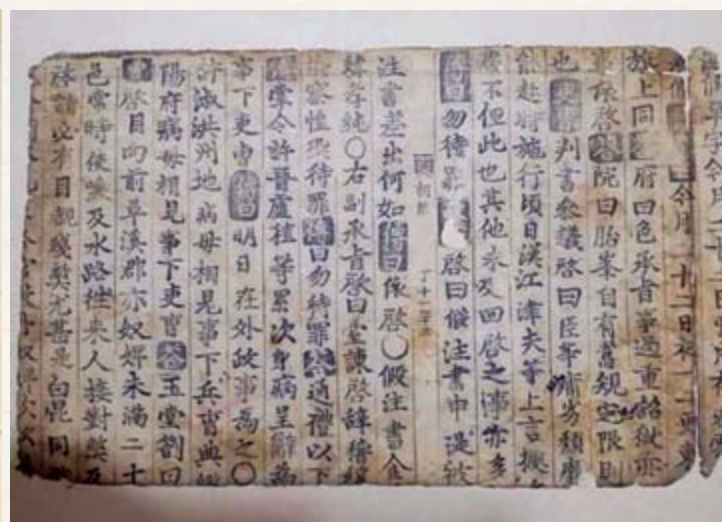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에서 민간에 유통된 활자조보는 필사한 정부 문서를 근간으로 조판해 인쇄하고 판매까지 했던 근대적 신문이었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비추어 이 활자조보는 1577년에 발행되었다. 세계최초의 활자신문으로 알려진 독일의 렐라치온과 아비소보다 30년 앞선 셈이다. 활자 조보는 그 실물도 발견되었다. 경북 영천의 한 사찰에서 현재 보관중인 신문은 1577년 음력

11월 6일 자, 15일 자를 포함해 모두 5일치다. 종이의 지질과 활자의 상태, 크기로 보아 목활자로 인쇄되었고 매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상업 일간지이자 활자 신문 조보가 한국에서 현물로 발견되었다. 세계 신문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만큼 획기적 발견이다.

세계최초로 발행되었던 활자신문 민간 조보는 3개월만에 폐간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직지심체요절, 1377년 인쇄



세계최초의 신문조보 1577년 발간

독일에서 발간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성서, 직지보다 78년이 늦다.

Travel destination



조선시대 세종때 제작한 금속활자 계미자

하는 것은 조선이 정보를 통제했던 탓이다.

선조는 조보를 민간에서 발간되어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자 30명의 관리들을 잡아들여 문초하고 유배를 보냈다. 이유는 조정의 소식이 일반이 알게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른바 보도 통제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처럼 활자 조보에 대한 통제를 가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중대한 사안이 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임금이 정보를 통제하려 했지만 그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선조가 강력하게 조보유통을 막았는데도 조보를 베껴서 보는 것이 유행했다. 특히 1597년 임진왜란 중에도 조선 조정은 조보를 발행했는데 민간에서 이를 베끼는 일이 만연했다.

선조가 두려워한 것은 전쟁 중에 조보가 적중에 들어가 기밀이 새거나 명의 조정에게 들어가서 오해를 사고 감찰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19년 광해군도 “지금 이후로 서궁과 저주에 관한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정보를 통제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면 국가의 기밀이 될 수 있는 세세한 내용은 넣지 말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승정원이 왕명을 어겨 왕이 화를 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조선에서 민간조보가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므로 이 기술은 그대로 흡수한 조선의 활자 인쇄술이 뛰어

났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궁궐을 습격한 왜군이 조선의 문화에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중에서도 인쇄술을 탐내 조선이 보관하던 활자를 일본으로 송두리째 가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쳤다. 그러나 기술자들을 데려갔지만 일본은 조선처럼 선명한 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조선의 인쇄술은 활자를 주조하는 것 뿐 아니라 금속활자에 쓰이는 조판이나 잉크제조 등 다양한 기술 등이 집약되어 발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세계 최고의 인쇄기술을 갖고 있었던 조선은 인쇄술을 자랑시키고 말았다. 서양보다 물질문명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기회를 왕명으로 상실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신문이 그대로 민간에서 유통되고 정보교류가 자유롭게 했다면 조선 사회는 서양보다 먼저 시민사회를 진입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양의 경우, 조선보다 30년 후에 활자 신문이 나왔지만 이로 인해 근대문명이 급속히 발달했다. 프랑스 혁명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시민계급이 깨어났기에 있을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신문이 유통되면서 시민들이 깨어났고 이로 인해 왕권은 무너졌다. 신문을 읽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계급이 생겨나 자유 평등 평화를 외쳤던 시민혁명을 성공했으며 결국 유럽의 정치제도가 변화했다.

유럽사회의 이같은 변화 역시 인쇄술의 발달에 기인한다. 구텐베르크 성서가 활자로 출간된 15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인쇄술이 전파되어 사회발전의 촉매역할을 담당했다.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문인 공화



프랑스 혁명. 인쇄술의 발달로 출발되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상상도



구텐베르크 초상

국, 18세기 계몽시대의 견인차가 바로 인쇄술인 셈이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주요 국가마다 구독자가 수천 명을 넘는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독일만 해도 3,500종에 달하는 정기간행물이 창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680년 기준 프랑스 남성의 29%가 문명에서 벗어났고 1780년에는 이 수치가 47%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우에도 14%에서 27%로 글 읽는 인구가 늘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을 기준으로 보면 파리의 남성의 90%, 여성의 80%가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다. 인쇄술과 신문의 발달이 사회혁명을 촉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귀족에게 대항했던 시민계급의 근간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왜 정치를 왕과 귀족이 독점하나' 하며 신문을 제작

했다. 이들 시민계급은 '돈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며 신문을 권리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서유럽의 신문이 시민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표출하는 정파지 성격을 보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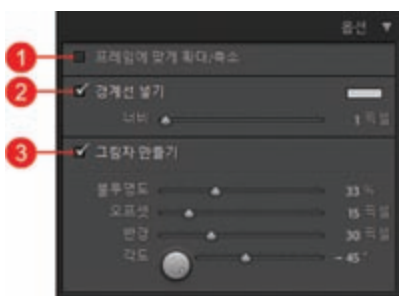
조선에서 조보를 발행하던 기관은 기별청(奇別廳)이라는 관청이었다. '기별이 왔나' 할 때의 기별이 여기서 나왔다. 조정에서 조보가 왔느냐의 뜻인데 이것이 일반에서 소식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럽과 달리 조선은 지배계층 내에서만 조보를 공유하도록 정보를 통제했다. 발달한 인쇄기술을 팽개치고 구한말까지 필사방식을 고수하면서 조선 사회는 열강의 놀이터가 되었고 결국 일제에 의해 점령당하고 만다. 조선에서 정보는 권력층들의 독점했고 일반 사람들은 알권리가 철저히 차단당했다. 그 결과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었다.

사진을 음악과 함께 재생하는 슬라이드 쇼 모듈-2

글·사진 백종수(주산지) / 디지털 사진 교육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jusanji@jusanji.co.kr / www.lightroom.kr

지난 10월호에서는 슬라이드 쇼 모듈의 구성과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1월호에서는 슬라이드 쇼 모듈의 세부 옵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슬라이드 쇼를 제작하기 위한 세부 옵션은 슬라이드쇼 모듈 오른쪽에 있는 여러 패널에서 설정합니다.



[옵션] 패널

[옵션] 패널은 슬라이드 쇼 화면에 표시되는 사진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사진이 표시되는 안내선 안쪽 영역을 '프레임'이라 하며, 이 안에 사진이 확대 및 축소되어 표

시됩니다. 사진에는 테두리 색과 두께를 설정하고, 그림자를 추가하여 사진과 배경이 떨어져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표현합니다. [옵션] 패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레임에 맞게 확/축소

프레임과 사자의 중첩비가 다를 경우 프레임에 사자를 확대/축소하여 표시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슬라이드 쇼 편집 화면의 흰색 안내선이 프레임이고, 이 안에 사자가 배치됩니다. 현재 사자는 원본 비율로 프레임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맞게 확대/축소] 옵션을 선택하면 프레임의 폭에 맞춰 확대되지만, 사자의 위와 아래 일부가 잘립니다.



② 경계선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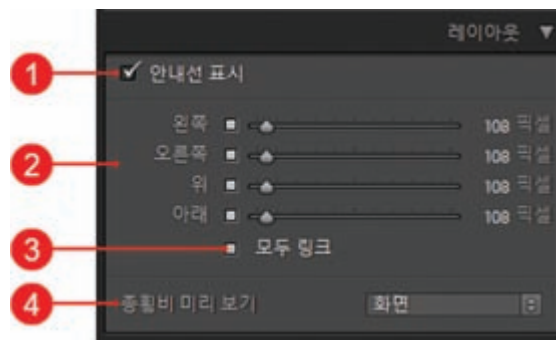
경계선은 사진의 테두리입니다. [경계선 넣기] 옵션을 선택하고 경계선의 너비와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비]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하고, [색] 버튼을 클릭하여 색을 지정합니다. 설정된 경계선은 프레임 안쪽으로 만들어집니다.

③ 그림자 만들기

그림자는 사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사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사진이 배경으로부터 떨어진 듯 보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그림자를 만들려면 [그림자 만들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림자는 프레임 바깥에 만들어집니다. [불투명도] 옵션은 그림자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오프셋]은 사진과 그림자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반경] 그림자의 바깥쪽을 부드럽게 처리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각도]는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더 왼쪽의 다이얼에 표시된 흰색이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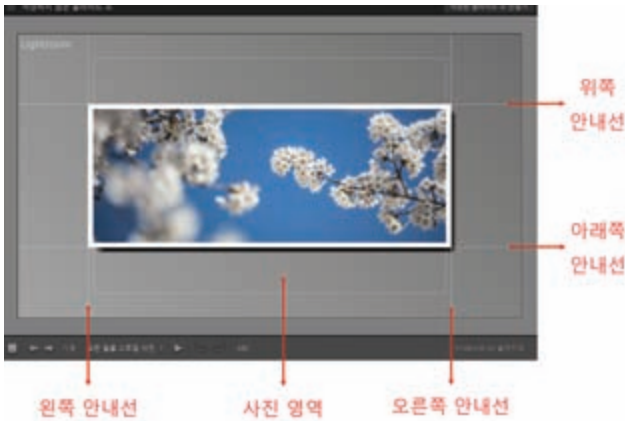
[레이아웃] 패널

[레이아웃] 패널에서는 안내선을 조정하여 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슬라이드 쇼 화면 바깥쪽 테두리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안내선의 간격으로 설정합니다. 간격을 같게 설정하려면 [모두 링크] 옵션을 선택하고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모두 링크]를 옵션을 해제하면 네 곳의 간격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횡비 미리보기]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횡비를 선택하면 슬라이드 쇼가 상영될 디스플레이의 종횡비에 맞춰 미리 볼 수 있습니다.



① 안내선 표시

사진이 표시될 프레임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해제하면 실제 사진 영역만 표시됩니다.



②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안내선을 조정하여 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편집 화면에서 안내선을 직접 드래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모두 링크

네 곳의 안내선을 함께 설정할 때 선택합니다. 네 개의 슬라이더 중 하나만 조정해 설정합니다.

④ 중형비 미리 보기

슬라이드 쇼가 상영될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정합니다. [화면]은 현재 모니터 화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16:9]는 16:9 화면 비율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상영할 때 선택합니다. [4:3]은 4:3 화면 비율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상영할 때 선택합니다.



[오버레이] 패널

[오버레이] 패널에서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표시될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식별판, 워터마크, 별 등급, 텍스트가 있습니다.

① 식별판

슬라이드 쇼 화면에 식별판을 오버레이 합니다. [식별판] 옵션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 슬라이드 쇼 화면 왼쪽 위에 표시됩니다. [식별판] 옵션을 해제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식별판]의 글씨 색은 [색상 재정의] 옵션을 선택한 후, 우측의 [색]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고, 위치는 편집 화면의 [식별판]을 직접 드래그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식별판]의 크기는 [비율] 슬라이더를 조정해 설정할 수 있지만, 편집 화면에서 [식별판]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 표시되는 핸들러를 드래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별판]을 크게 설정해 사진과 겹치면 [이미지 뒤에서 렌더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식별판]이 이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② 워터마크

[워터마크] 섹션에서는 사진에 워터마크를 오버레이 합니다. 사진을 내보낼 때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워터마크] 옵션을 선택하고 오른쪽 목록을 클릭하여 사용할 워터마크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워터마크가 없다면 [워터마크 편집]을 클릭하여 바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급 설정

사진에 설정된 별 등급이 있으면 슬라이드 화면에 표시합니다. 별 등급의 색, 불투명도,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식별판과 같습니다.

④ 텍스트 오버레이

[텍스트 오버레이] 섹션에서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표시될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편집 화면 아래 [오프셋 바]에서 [ABC]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른쪽의 [사용자 정의 텍스트] 목록에서 표시할 텍스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텍스트가 표시되면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텍스트를 넣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 텍스트 항목]을 선택한 후, 우측 입력란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배경] 패널

[배경] 패널에서는 슬라이드 쇼 화면의 배경을 설정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배경은 빗살무늬가 있는 [색상 그라디언트] 배경과 [필름 스트립]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배경 이미지] 배경, 그리고 [배경색] 배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배경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색상 그라디언트]와 [배경 이미지] 또는 [색상 그라디언트]와 [배경색]을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ght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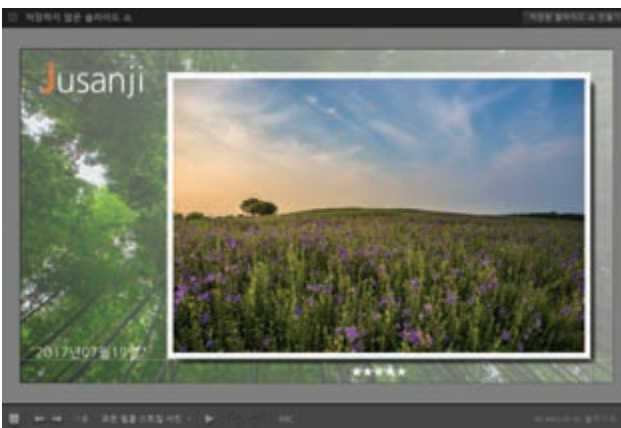
① 색상 그라디언트

[색상 그라디언트] 옵션은 점진적 효과가 적용된 배경입니다. 배경 옵션이 설정되지 않으면 배경은 검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색상 그라디언트] 옵션을 설정하고 [배경 이미지] 또는 [배경색] 함께 사용하면 배경 이미지 또는 배경색에 점진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②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 옵션은 [필름 스트립]에서 사진을 드래그해 [배경 이미지] 섹션에 놓으면 바로 설정됩니다. [색상 그라디언트]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배경 이미지에 점진적 그라디언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배경색

[배경색] 옵션은 배경을 단색으로 설정합니다. 오른쪽 [색] 버튼을 클릭하여 색을 지정합니다. [색상 그라디언트]와 함께 사용하면 배경 이미지에 점진적 그라디언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패널

[제목] 패널에서는 슬라이드 쇼의 시작 화면과 종료 화면을 설정합니다. 각각의 화면에 식별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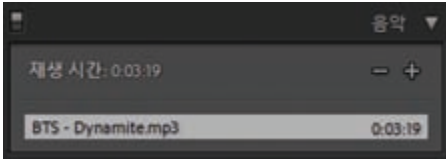
① 시작 화면

① [시작 화면] 옵션을 선택하면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색]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 화면의 색을 설정합니다. [식별판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시작 화면에 식별판이 중앙에 표시됩니다.



② 종료 화면

[종료 화면] 옵션을 선택하면 슬라이드 쇼가 끝난 다음에 종료 화면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색]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 화면의 색을 설정합니다. [식별판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종료 화면에 식별판이 중앙에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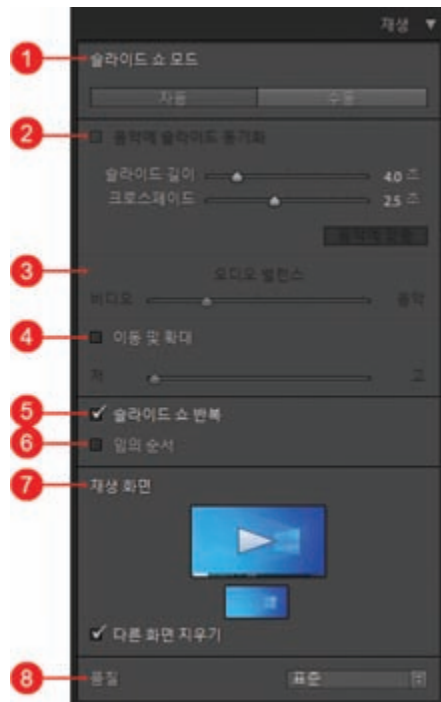
[음악] 패널

[음악] 패널에서는 배경으로 사용할 음악 파일을

등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MP3 음악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슬라이드 쇼의 재생 시간과 맞으면 좋지만, 음악 재생 시간이 조금 길거나 모자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생] 패널에서 음악 재생 시간에 맞춰 슬라이드 화면의 재생 시간을 균일하게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재생] 패널

[재생] 패널에서는 슬라이드 쇼의 재생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합니다.



① 슬라이드 쇼 모드

슬라이드 쇼를 자동으로 재생할 것인지 수동으로 재생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자동] 버튼을 클릭하면 [재생] 패널의 모든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합니다. 반면 [수동]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다음 화면처럼 줄어들고, 수동으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합니다. 수동으로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려면 키보드의 방향 키를 사용합니다.

② 음악에 슬라이드 동기화

[음악] 패널에 등록된 음악 파일에 슬라이드 쇼를 동기화합니다. 즉, 슬라이드 쇼의 재생 시간을 음악의 재생 시간과 맞춥니다. 이 옵션을 해제하면 사용자가 개별 슬라이드의 재생 시간과 전환 시간을 직접 조정합니다. [슬라이드 길이] 슬라이더는 한 화면의 재생 시간을 의미하고, [크로스페이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크로스페이드]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음악에 맞춤]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 길이]가 음악 재생 시간 내에 맞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크로스페이드] 시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③ 오디오 밸런스

슬라이드 쇼에 동영상(비디오)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영상의 오디오와 배경 음악의 오디오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④ 이동 및 확대(Pan and Zoom)

슬라이드 쇼 화면이 재생될 때 사진을 이동 및 확대하는 동적 효과를 추가합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이동 및 확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슬라이드 반복

슬라이드 쇼의 재생이 끝나면 반복 재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슬라이드 쇼를 중지하기 전까지 반복 재생합니다.

⑥ 임의 순서

슬라이드 쇼의 재생 순서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⑦ 재생 화면

컴퓨터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 슬라이드 쇼를 재생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다른 화면 지우기] 옵션을 선택하면 슬라이드 쇼가 재생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검은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⑧ 품질

슬라이드 쇼의 품질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슬라이드 쇼 모듈의 세부 옵션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책 모듈의 워크플로우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도 문화예술제에 본협회 사진인 ‘대거 출동’ 29대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촬영대회 개최

글, 사진 최옥임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옥임 진검무예 연출



©최옥임 장고와 소고 모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진도에서 제29대 스포츠사진분과의 마지막 행사인 진도문화예술제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개최되었다. 하용순 진도 지부 지부장의 주최, 스포츠사진분과 위원회 유광중 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위상과 진도를 널리 홍보할 기회가 되었다. 스포츠와 사진예술을 접목하는 이번 행사에는 많은 사진가와 진도 관민,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임원과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박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유광중 스포츠사진분과 위원장은 ‘오시는 길이 멀고 도 가까운 전국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과 회원, 사진가, 진도에서 협조해 주신 관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오늘 사진 촬영은 북춤과 승무, 장고와 소고, 어질리터, 마상무예, 승마, 누드 6개 조로 나누어 모델 촬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껏 촬영하시고 좋은 작품 만들어 이번 촬영대회에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종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 부이사장이 “스포츠 사진분과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도에서 사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임을 강조했고 하용순 지부장, 차제남 관광개발

국장의 축사와 이문교 진도군 의회 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3년여 동안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있을 때도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2020년 7월 20일 금강 보트 수상 스키장에서 임시총회와 수상스키 촬영을 시작으로 9월 5일 난지도 해수욕장, 11월 21일 서천 떠섬목 해수욕장, 2021년 6월 12일 임자대광 해수욕장, 11월 20일 진도 가계해수욕장, 22년 6월 12일 당진 운여해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제29대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의 3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사진 촬영대회는 두필의 말이 동원되었다. 보배의 섬 천도천색의 바다정원이 있는 진도의 가계해수욕장 약 3km의 모래사장에서 두 필의 말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역동적인 그림이 연출되었다. 사진을 담기 위한 사진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넓디넓은 바다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5대의 수상스키도 다양한 볼 거리와 작품의 주제를 제공했다. 해수욕장 이곳 저곳에서는 진돗개 두 마리의 장해물 묘기를 선보이고, 장고와 소고, 어질리터, 마상무예의 모델은 사진가의 셔터소리를 이끌었다. 이어진 야간 촬영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야외무대에서 진도북춤과 라이트페이팅의 조합으로 창작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진 세미나드



인사말을 하는 유광중 위원장



인사말을 하는 하용순 진도 지부장



축사를 하는 박종길 전 부이사장



축사를 하는 이문교 의원



축사를 하는 차제남 진도군 관광국장



©최옥인 수상스키

와의 라이트 페인팅의 다양한 촬영으로 사진인들의 탄성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늦은밤 10시까지 촬영을 마감하며 모든 일정이 막을 내렸다.

유광중 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가의 촬영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29대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의 마지막 행사의 막을 내렸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독도, 흑산도, 백령도... 한국의 섬 찾아 3년 촬영 2022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개최

글, 사진 최옥임(보도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개전식이 있는 구미로 달려가는 길목에는 가을의 들꽃들이 환한 미소로 반겼다. 구미에는 보리죽도 못 먹던 시절을 벗어나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말을 하는 박용득 위원장



축사를 하는 이판수 부이사장



축사를 하는 백순창 경북도의원

미예총회장, 백순창 경북도의원외 외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은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했다.

환경사진분과위원회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생가가 있다. 이곳에서 지난 10월 23일 15시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3층 전시실에서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주최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분과위원 20여 명과 이판수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홍성광 운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유수찬 상임이사, 이한석 구

섬으로 두 개의 섬과 작은 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의 독도를 시작으로 울릉도와 제주도, 흑산도, 홍도, 백령도 등 천연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을 차례로 섭렵했다. 전시와 작품집 출간 목적으로 3년여 동안 꾸준히 촬영한 사진들이 이번 전시회에 관객을 만났다. 54명의 위원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전시회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



©신동선_동도야경



©강희서_독도갈매기

중 28명의 위원이 제출한 56점 사진을 가지고 작품집과 사진 전시를 했다.

박용득 제29대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3년 동안 환경사진분과에서 위원님과의 만남으로 활발한 활동과 친목으로 동행할 수 있어 영광이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분과에서는 독도를 시작으로 사업 계획된 섬들을 차례로 섬 사진 여행을 꾸준히 촬영한 사진이 있어 이번 전시회 개최를 할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날 이판수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외빈으로 참석한 백순창 경북 도의회 의원과 이한석 구미 예총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29대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활동은 28대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박용득 위원장은 분과 활동을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물로 작품집과 사진 전시로 29대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권경애_홍도의 아침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전시회
참석한 내빈들
(사진 맨 왼쪽 우수찬 상임이사, 이판수 부
이사장, 이한석 구미예총회장, 홍성광 운영
자문위원회부위원장, 박용득 위원장)

2022년 6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회의실
성 원 : 총원 84명, 출석 59명, 위임 14명
출 석 : 김양평 이사장,

신성우, 김중택, 조 정, 양범석, 이판수 부이사장,
유수찬 상임이사, 강태호, 고기하, 박준석, 김복순, 김삼택,
김석정, 김시목, 김양호, 김원희, 김윤식, 김은곤, 김재업,
김정금, 김준기, 김찬식, 김철수, 김춘도, 김화연, 문금영,
박경순, 박병우, 배택수, 범진석, 설병갑, 성주희, 손석윤,
송인호, 양양금, 윤홍선, 이경래, 이경희, 이기범, 이덕만,
이막래, 이명수, 이애영, 이윤순, 이종석, 이한욱, 이흥기,
임성동, 임성하, 장숙자, 정연수, 정종관, 조용철, 최복수,
최창수, 한병률, 한분조, 한용상, 황치길 이사

위 임 : 공병철, 권기갑, 김용권, 김종호, 문제민, 민웅기, 손병호,
송재규, 우경환, 이향룡, 전태국, 최성용, 호준진 이사
참 석 : 성상경, 이희배, 선종백 감사

1. 성 원 보 고 -윤홍선 이사
2. 개회인사말 -김양평 이사장
3. 전자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김삼택, 손석윤 이사
/ 경과보고 윤홍선 이사

[경 과 보 고]

2022.10.14.~15.	한국예총 예술축전 본선 및 전국대표자 회의
2022.10.15	제921차 대구 전국사진강좌
2022.10.20.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면담
2022.10.29.	제922차 진주 전국사진강좌

4. 안 건

1) 사무처장 인준의 건

: 정관 제30조 2항에 의거 사무국장 김형준을 협회 사무처장으로 인
준 함.

2) 제60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개최의 건 - 승 인

3) 제61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추천 공고의 건 - 승 인

4) 2022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면신청 공고의 건 - 승 인

5) 규정 개정의 건 - 승 인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②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1점, 추천작품상 1점을 선정한다.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②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5점 이내 , 추천작품상 1점을 선정한다.

6) 제62차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일 결정의 건

일 시 : 2023년 2월 18일(토)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강당
: 총회 일시와 장소는 대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총회 상정 안건
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 하기로 함.

7)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관련 건

① 선거일자 결정의 건 - 승 인

일 시 : 2023년 1월 14일(토)
장 소 :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명시된 16개 지역. 단,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투, 개표 장소를 추가할 수 있음

② 후보등록일 결정의 건 - 승 인

가. 예비후보 - 등록일 : 2022년 12월 01일(목) / 장 소 : 예술인센
터 9층 협회 회의실

나. 본 후보 - 등록일 : 2022년 12월 22일(목) / 장 소 : 예술인센
터 9층 협회 회의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이사장에게 위임

④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산정의 건 - 승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 강원) : 회당 100,000원

나. 수도권 외 : 회당 150,000원

다. 선거일 및 합동토론회 출장비 : 200,000원

- 지역선거관리위원회 : 회당 100,000원 (3회 이내 소집)

⑤ 후보자 기탁금 결정의 건

: 선거와 관련한 각종 비용의 상승, 합동토론회 개최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선거 종료 후 남은 기탁금은 각 후보자에게 배분해주
는 점, 추가적으로 예측산하 예술단체와의 비교 및 선거비용으로
회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 기탁금을 1억 원으로 결정 함.

8)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의 건 - 승 인

번호	성명	입상, 입선 실적	상장점수	지역	비고
1	정금화	특선 2회, 입선 1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사진예술 아카데미 1년 수료	12점	강동구	
2	박오복	특선 1회, 입선, 6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순 천	

9) 심사자격 인준의 건 - 승 인

① 전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번호	성명	입회일자	자격기준	구분	소속	비고
1	정금화	2015-01-29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2년 11월 3일)	전국심사자격	강동구	
2	박오복	2015-03-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022년 11월 3일)	전국심사자격	순 천	

② 지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번호	성명	입회일자	추천·초대작가 지정일	구분	소속	비고
1	문태환	2009-01-29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 : 2018.08.04.	지역심사자격	광 주	
2	김혜숙	2009-10-22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지정일 : 2022.07.27.	지역심사자격	대 전	
3	윤석미	2010-12-23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지정일 : 2022.07.27.	지역심사자격	대 전	
4	정삼열	2009-09-24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지정일 : 2019.07.05.	지역심사자격	대 전	
5	박은영	2009-12-17	충청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지정일 : 2021.07.24.	지역심사자격	청 주	

2022년 6차 이사회 결과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10)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 인

〈임 원〉

중앙구지부 : 부지부장 - 황봉연, 김만의 사무국장 - 이영우
 재무간사 - 이상준 기획간사 - 양승서
 홍보간사 - 이숙현 사업간사 - 김인만

〈입 회〉 - 14명

송 파 구 : 황점숙(준), 김연희(준)
 종 로 구 : 임천수(정)
 광 주 : 신영숙(정), 우경근(정), 윤태호(정), 정은진(정)
 부 산 : 권태영(정), 이분우(정)
 김 포 : 조영진(정)
 동 두 천 : 허인숙(정)
 사 천 : 김기환(정)
 여 수 : 송순기(정)
 워 싱 턴 : 장수내(정)

〈승 격〉 - 4명

제 주 : 양윤수
 동 두 천 : 송영숙
 안 양 : 유규식, 정윤서

〈복 권〉 - 12명

송파구 : 윤성례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송파구 : 장세빈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송파구 : 정성선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부 산 : 이중환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양 양 : 김양식 - 자 퇴 / 회비완납
 양 양 : 전영권 - 자 퇴 / 회비완납
 양 양 : 천세영 - 자 퇴 / 회비완납
 동두천 : 황재활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군 산 : 김재운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군 산 : 서재선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군 산 : 오태영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금 산 : 임문익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11) 입회점수 인정기관 승인의 건 - 승 인

번호	강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역	강좌명	시수
1	박충근	제2021-0144호	성북문화원	서울	사진교실(전반기) 사진교실(후반기)	12주/30시간 12주/30시간
2	신동현	제2021-0157호	J&L 사진아카데미	가평	DSLR 사진촬영 전문과정 DSLR 작품사진촬영 전문과정	12주/48시간 12주/48시간
3	이인호	제2022-0928호	충남대 평생교육원	대전	여행과 사진촬영(기초) 여행과 사진촬영(심화)	15주/30시간 15주/30시간

12) 기타의 건

① 사진예술아카데미 2022 사진작가과정 졸업전시 개최

- 일 시 : 22년 12월 7일(수) ~ 12월 12일(월)
- 장 소 : 갤러리 라메르 (Gallery LAMER)

② 한국저작권위원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시행

- 교육대상 : 지회지부장 및 사무국장, 사진교육지도자, 수강희망 회원

- 교육내용 : 1) 저작권 위원회 원격아카데미 수강 : 10월 31일 ~ 11월 11일 기간 내

2) 비대면 실시간 강의 : 11월 17일 오전, 오후 중 택 1

③ 임기만료 지회·지부장 및 분과위원장 공로상 수여의 건

: 임기를 마친 지회, 지부장 및 분과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사장 명의의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의. 단,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 한함.

한국사진작가협회 2022년 사면신청 공고

2022년 제6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29대 집행부 임기동안 징계처분을 받아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면신청을 공지합니다.

신청대상 제29대 집행부 임기동안 징계처분 되어 회원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단,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송 또는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함.

제출기한 2022년 12월 16일(금) 도착 분
(소속 지회, 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청서가 도착한 기준)

유의사항

- 1) 사면신청자는 반드시 소속 지회·지부로 사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각 지회·지부에서는 접수된 사면신청에 대해 간사회를 거쳐 직인이 날인 된
사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마감 기한 이전까지 도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3) 사면신청서와 사면의견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각종서식 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금번 신청 건은 12월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면위원회 위원장 김 중 택

협회소식 SOCIETY NEWS

한국예총 전국 대표자 워크숍 및 대한민국예술축전 개최



개회사 인사말을 하는 이범현 회장

지난 10월 14일 ~ 15일 양일간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는 전국 대표자 워크숍과 대한민국예술축전을 개최하였다. 먼저 14일에는 사진, 영화, 국악 총 3개 분야의 각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대표들의 경연을 통해 본선 수상자를 선정했다. 15일 2시 울산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사진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에는 서울지역 김

용백 작가, 우수상은 충남지역 편선향 작가, 특선에는 전북지역 김경남 작가와 울산지역 강우순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2 한국예총 전국 대표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은 한국예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예총 60년! 예술의 힘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



시상식 후 기념촬영

로건으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자립 경영 기반 개선,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생존 기반 확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 대한민국 예술 세계화 전략 수립이라는 4대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천안 대한민국아트센터 건립운영’, ‘한컴과의 업무제휴’ 등 현재 추진중인 중요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범헌 회장은 “오늘 발표한 이러한 전략과제와 세부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하며, 한국예총은 대한민국 예술인의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개 단체와 지역 예총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

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많은 인사들이 영상과 서면을 통해 이번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어진 제35회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을 통해 예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중 사진작가협회 소속 회원이 총 12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윤희선 이사, 은호진 자문위원, 양철호 산악사진분과부위원장, 김양호 부산지회장, 조선일 인천지회장, 우경환 대전지회장, 이항룡 이사, 신동희 전 홍천지부장, 채석증 전 증평예총회장, 임성동 전남지회장, 이한석 자문위원, 이애영 이사가 공로상을 받으며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시상식 후 기념촬영



시상식 후 기념촬영



수상자들과 단체기념 사진 촬영

제61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1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후보자 추천을 공고합니다.

□ 분야

- ① 공 로 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작 품 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③ 출 판 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 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⑥ 회 원 표 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 마감일

2023년 1월 18일(수) 협회 도착분에 한함

□ 진행절차

- 접수 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3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경기도지회, 경기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



경기북부경찰청장과 본 협회 경기도지회장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사진 오른쪽 경기북부경찰청장 이문수 치안감, 왼쪽 김시묵 경기도지회장)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경기도지회 임원 기념촬영
(사진 맨 왼쪽부터 이기범 부지회장, 김시묵 도지회장, 이문수 치안감, 정재문 부지회장, 강돈영 기획간사, 사진촬영 서능원 촬영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지회장 김시묵)와 경기북부경찰청 (청장 이문수 치안감)은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내에 사진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직원과 민원인의 감성을 함양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김시묵 지회장, 이기범 부지회장, 정재문 부지회장, 서능원 촬영간사, 강돈영 기획간사가 함께 참여 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6월 양평군립미술관에서 "2022년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전시된 작품 중 영구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작품 136점

을 경기북부경찰청 내 전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사진전시는 경기북부경찰청이 11월 별관 신축 준공식을 앞두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시묵 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는 다양한 전시 이후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들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 지속적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심사 및 수상자 발표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심사장면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 심사 및 수상작 발표가 10월13일(목)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에는 지난해 1,578점보다 833점 늘어난 총 2,411점이 출품되었다. 도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전문사진작가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50점 (대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7점, 입선 140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경기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원화성 팔달문을 촬영한 임호민 씨 "공존"이, 우수상에는 수원화성 창룡문을 촬영한 이상우 씨 '연날리기', 연천 재인폭포의 가을풍경을 담은 장준복 씨 '가을폭포'가 차지하였다.

협회소식 SOCIETY NEWS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시묵)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공모전과 비교해 수상작을 80점에서 150점으로 늘렸으며, 시상금도 1천550만원에서 2천1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 우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색다른 사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하였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 관광에 대한 사진 애호가들의 높

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소중한 작품을 활용해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접수와 심사 운영을 맡은 김시묵 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은 이번 “2022 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을 준비하고 많은 작품이 출품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님들과 전국의 사진 애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지회, 2022 향토작가 초대전 개최



개전식 인사말을 하는 김시묵 경기도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지회장 김시묵)가 주관하는 2022년 향토작가초대전 및 인준서 수여식이 10월 25일(화) 오후 2시에 이천아트홀 전시실에서 거행되었다.

인준서 수여식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성우 부이사장, 유수찬 상임이사, 경기도 31개 지부장님 등 내·외반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향토작가에 선정된 6인의 작가는 곽보선, 박성우, 박찬애, 손창수, 이정순, 황말남 작가이며,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특별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김시묵 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은 인사말을 통해 “향토작가 초대전은 사진예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역량 있고 참신한 경기도 지역의 사진작가를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진예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고, 해를 더해 갈수록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수준이 더 다양하고 향상되어 심사에 고심하였음을 전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도 향토작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맞는 스토리 전개로 15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노력하고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토작가초대전 전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천아트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향토작가회 단체 기념촬영

의정부지부 · 통영지부 합동 회원전 개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김광수) 회원들이 선(線)을 주제로 지난 10월 5일 수요일 경민현대미술관에서 개전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원전은 지난 5월 의정부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통영지부 (지부장 김성도) 12명의 작가들도 참여해 볼거리가 풍성했다. 천혜의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지부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관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삶의 면면을 빛으로 포착해 기록하는 작가들이 있어 사소한 일상들이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고 축사를 남겼다. 이어 김광수 의정부지부장은 “사진이 소통과 교류에 효과적인 매체임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도 통영지부장은 “올해 5월 5일 불원천리를 달려와 통영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의정부지부와와의 첫 번째 교류전이 앞으로 더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전이 되길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개전식 이후 통영지부 임원들과 김광수 의정부지부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마련한 차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김시장은 향후 양 지부간의 교류에 의정부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자원방안도 찾아보겠다”며 격려했다.



김광수 지부장, 김동근 시장, 김성도 지부장



‘회복의 사계’ 제3기 촬영지도위원회 사진전

20일(목)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관에서 “회복의 사계”라는 주제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기 촬영지도위원회 사진전 개막식을 장준복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거행했다.

윤지한 회장은 홍창일 자문위원, 김의배 본부 이사, 김경호 본부 이사, 이성록 창작사진분과 위원장, 이운재 여행사진분과 위원장, 김한웅 촬영지회 4기 회장, 김형덕 풍경사진분과 위원장, 최병순 종로구지부장,

협회소식 SOCIETY NEWS



인사말을 하는 윤지한 회장



단체기념사진 촬영

신경애 민속사진분과 위원장, 송장호 디지털사진분과 위원장, 강정수 종로구 예총회장, 김가중 한국사진방송 대표 등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윤지한 회장은 “사진전은 사진 예술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출품하신 회원님들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활동한 결과로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의 사계’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는데 각지의 자연과 생태의 사계절, 문화를 상징하는 전시장 풍경까지 다양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는 인사말을 했다.

홍창일 자문위원의 회원전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가 있었다. 이후 3기 촬영지도위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나란히 서고, 윤지한 회장이 차례로 일일이 소개했다. 회원들은 내빈에게 인사한 후 파이팅을 외쳤다.

내빈과 임원들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했다. 끝으로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전시된 사진을 관람했다.

글·사진 김의배(본부 이사)

신비의섬 제주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삼각대 4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노출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포인터 안내 오전과 오후
 차량 : 쏘렌토 5인승 (1명~4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20만원
 차량 : 9인승 승합차 (5명~7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30만원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풍경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김삼진 이사, 제44회 경북예술상 대상 수상



김삼진 이사가 제44회 경북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는 경북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경북예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삼진 이사는 사진예술을 전공한 시각예술인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정수문화예술원 부이사장, 한국예총 구미지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경북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전국단위 사진 공모전을 40회 이상 개최했으며, 예총 구미지부 자문위원으로 구미예총 행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 대한민국정수대전을 미술·서예문인화·사진대전으로 세분화 시켜 각개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최고 시각예술대전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한석 한국예총 구미지회장,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이한석 한국예총 구미지회장 수상

지난 10월 21일 영주 선비세상에서 개최된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한석 한국예총 구미지회 회장이 '2022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은

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타의 모범이 되는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감동경북, 지역사회 발전 3개 부문에서 총 41명을 선정했다.

이한석 지회장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서 수상했다.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창의와 품격을 갖춘 낭만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문화생산자로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생활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 지역 문화예술 지원, 창작기반 조성, 시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광수 지부장 '제35회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의정부시는 9월 27일 '제35회 의정부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개 부문 각 1명씩,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그 중 김광



김광수 의정부 지부장 '제35회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장이 올해 학술·교육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올해 35번째로, 각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정부시의 명예를 드높인 유

공자를 부문별 1명씩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온 의정부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시상은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부터 송산사지 근린공원에서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었으며 김광수 지부장은 문화상 수상자로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수상한 김광수 지부장이 이끌고 있는 경기북부사진연구회의 사진전이 11월 14일부터 의정부시청 시민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김원희(아산)이사, 손용희(아산)지부장 영식혼
2022년 10월 22일(토) 오후5시 아산터미널 웨딩홀 8층 메모리아홀
- 이상술(서울)회원 영애혼
2022년 11월 5일(토) 오후2시 서울 아펠가모 반포점 11층(지하2층)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하헌홍(대전)부지회장 부친별세
별세 2022년 10월 16일 발인 2022년 10월 18일
- 김진영(천안)사업간사 부친별세
별세 2022년 10월 28일 발인 2022년 10월 30일
- 유두현(천안)회원 부친별세
별세 2022년 10월 30일 발인 2022년 11월 1일

바로잡습니다
2022년도 10월호 통권507호 60페이지 하단부 사진설명 구례회업사 사자자 삼총석탑(국보제35), 경주정혜사자 삼삼총석탑(국보제40호)를 국보-남원실상사백장암삼총석탑(국보제10호)로 바로잡습니다.

회원동정 MEMBER PLAZA

10월 입회를 환영합니다



황점속(송파구 · 준)



겸연희(송파구 · 준)



임천수(종로구 · 정)



신영숙(광주 · 정)



우경근(광주 · 정)



윤태호(광주 · 정)



정은진(광주 · 정)



권태영(부산 · 정)



이본우(부산 · 정)



조영진(김포 · 정)



허인숙(동두천 · 정)



김기환(사천 · 정)



송순기(여수 · 정)



장수나(워싱턴 · 정)

발전기금 적립 내역

(2022년 10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적립금(2020.3월~03월말) : 80,604,333

계 : 1,096,778,223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55,000,000 (2,550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④ 2021년 계 : 27,700,000
- ④ 2022년 계 : 20,900,000
- ▷ 2022년01월(59명) : 5,900,000
- ▷ 2022년03월(46명) : 4,600,000
- ▷ 2022년04월(24명) : 2,400,000

- ▷ 2022년05월(9명) : 900,000
- ▷ 2022년07월(41명) : 4,100,000
- ▷ 2022년10월(30명) : 3,000,000

○기타 계 : 43,776,757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 67,521 (29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 15,236,812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696,778,223

이용기간 : 2022.11.1 ~ 2023.2.28 까지

용평리조트

MonaPark 상고대 PKG

패키지 상품 안내

객실 1박

+

발왕산케이블카 왕복권(2인)

[단위 : 천원]

적용일			호텔			타워	빌라콘도			그린 피아	
			디럭스 (2인)	디럭스패밀리 (3인) /슈퍼리어 (2인)	슈퍼리어 패밀리 (3인)	SOD / SOT (3~4인)	28 Py (4인)	41 Py (6인)	48 Py (6인)	25 Py (4인)	38 Py (6인)
로우	11/1-11/30	주 중	111	121	131	101	111	131	141	121	141
		토	141	151	161	131	141	161	171	151	171
하이	12/1 ~ 16	주 중	146	156	166	136	146	166	176	156	176
		토	176	186	196	166	176	196	206	186	206
파크	12/17 ~ 29 23년 1/8-2/28	주 중	201	211	221	191	201	221	231	211	231
		토	231	241	251	221	231	251	261	241	261
골드	12/30~ 23년 1/7	전체	231	241	251	221	231	251	261	241	261

*그린피아 콘도 기본 마운틴 뷰(슬로프 뷰 선택시 20,000원 추가 금액 발생)

* 12/23-24일, 1/21-23일 주말요금 적용

MonaPark 상고대 PKG 이용안내

1. 상품 구성 : 객실 1박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2매)
2. 본 상품은 부분 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3. 객실 예약은 02-3270-1219(예약담당자 : 김준호)로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8:00)
* 주말 : 예약실 1588-0009(내선 1번_토 : 9:00~15:00 / 일요일,연휴 휴무)
4. 대소 구분없이 2인 사용 가능하며 날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대표전화 033-335-5757)
5. 체크인 투숙 당일 15:00 이후 가능하며,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분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6. 예약 시 선 결제 진행되며 객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7.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예약센터로 변경,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발생]

No-show 및 당일 취소 50% 청구 / 1일전 취소 40% 청구 / 2일전 취소 30%청구 / 3일전 취소 20% 청구
4~6일전 취소 10% 청구(도착일 기준 위약금 공제 후 환불)

Best Brand & Product

미래형 렌즈의 시작! 소니 FE 70-200mm F2.8 GM II

1세대 GM 렌즈 중 하나였던 소니 FE 70-200mm F2.8 GM 렌즈가 출시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가벼워지면서 영상 촬영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소니 FE 70-200mm F2.8 GM II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향상된 화질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AF 성능을 갖춘 팔방미인 망원 줌렌즈인데요. 어떤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니 FE 70-200mm F2.8 GM II 렌즈 외형 살펴보기

렌즈의 최대 길이는 200mm이며, 최대 지름은 88mm입니다. 순수 렌즈의 무게는 약 1045g으로 기존 FE 70-200mm F2.8 GM 렌즈보다 약 400g 정도 가볍습니다. 필터 구경은 동일하게 77mm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무게가 1/3 수준으로 가벼워진만큼 휴대성이 매우 우수해졌습니다. 또한, 초점 고정 버튼이 렌즈 측면과 상단에 모두 배치

되어 있어서 카메라의 사용자 정의 키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할당하여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측면에 AF/MF 레버도 제공되어 렌즈에서 빠르게 초점 모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단렌즈처럼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링이 탑재되어 있으며, Lock도 가능합니다. 최단 촬영 거리를 3m 이후로 제한



기본 제공되는 후드는 원형 후드가 채택되었고 필터 사용 시 편의성을 위한 커버가 적용되어 있으며, 측면에 락 버튼이 있어서 후드가 임의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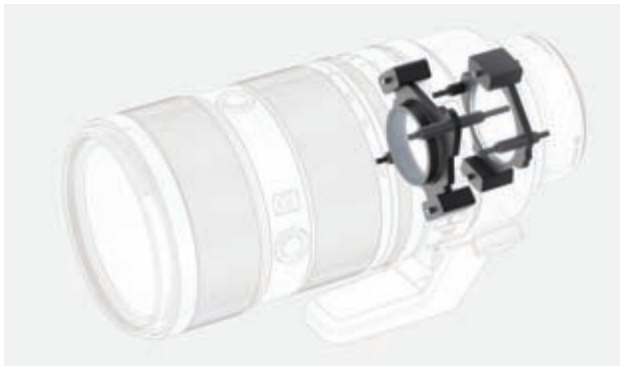
할 수 있는 레버도 제공되며, DMF 모드도 렌즈에서 선택할 수 있어 사용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손떨림 보정 옵션도 모드 1, 2까지 지원되던 1세대 GM 렌즈와 달리 모드 3가 추가되어 더욱 역동적인 촬영에 유리해졌습니다.

■ 렌즈 주요 특징

소니 FE 70-200mm F2.8 GM II 렌즈는 플로팅 포커스 시스템이 적용된 4개의 XD 리니어 모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밍 시에도 초점이 나가지 않는 설계가 적용되어 동적인 피사체 촬영 시 더욱 강력한 AF

Best Brand &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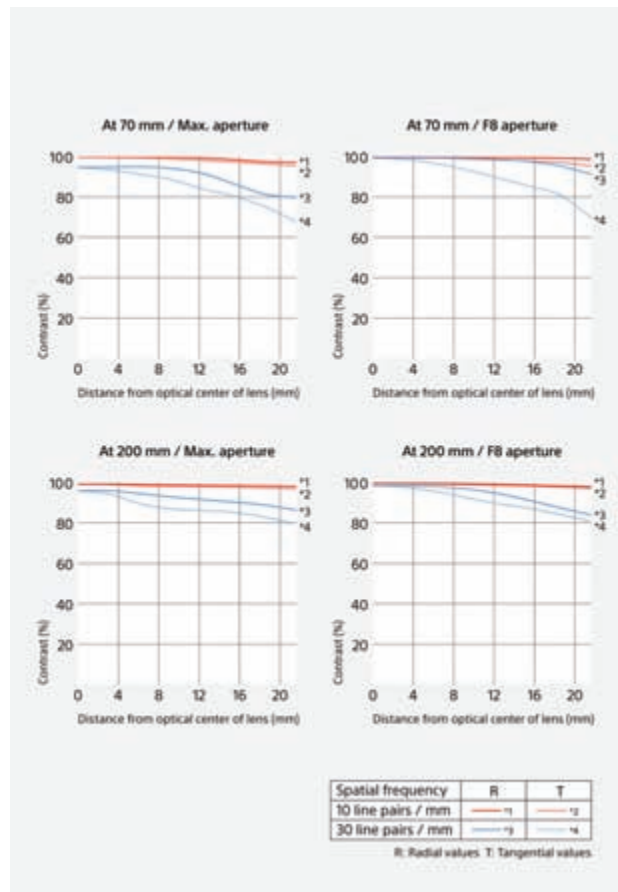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팅 포커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우 짧은 근접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도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1세대 70200GM 렌즈가 무거운 모터로 인해 신속한 AF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한 렌즈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대 촬영거리는 0.4(W)–0.82(T)m로 최대 약 0.3배의 배율을 제공합니다. 근접 촬영 능력이 매우 뛰어난 망원 줌렌즈이기 때문에 일상 스냅 촬영에서 더욱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조리개는 11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채택하고 있어 원형 보케 표현에 유리합니다. 조리개가 조여줘도 원형을 유지하는 속성이 상당히 우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보여줍니다.

1세대 GM 렌즈보다 화질면에서도 더욱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주며, 수차 억제력도 좋아 풍경 촬영부터 제품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하기 좋은 망원 줌 렌즈입니다. 나노 AR II 코팅이 적용되어 플레어와 고스트 억제력도 좋습니다.



소니 FE 70–200mm F2.8 GM 렌즈의 최고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가벼워진 무게인데 DJI RS2에 올라갈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지고 무게 중심이 뒤로 이동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매우 적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 소니 FE 70-200mm F2.8 GM II 렌즈

소니 FE 70-200mm F2.8 GM II 렌즈는 GM 렌즈 리뉴얼의 시작을 알리는 렌즈로서 여전히 소니의 최상급 렌즈 라인업인 GM 렌즈로 우수한 화질, 빠른 AF 속도, 경량화된 외형과 가벼운 무게는 물론이고 뛰어난 AF 성능까지 고루 갖춘 망원 줌렌즈입니다. 특히, 초점 검출 중에 줌을 해도 초점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리얼타임 트래킹을 이어가기 때문에 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하는 사진 & 영상 촬영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원 렌즈임에도 가벼운 무게로 짐벌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상 촬영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사진가들에게도 장시간 사용 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전천후 렌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상 및 출력

- ▶ 아트룩스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03호 Tel. 02)2653-9007 Fax. 02)2654-9007
- ▶ 월포현상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9-9 에림빌딩 2F Tel. 02)2273-5301~2 Fax. 02)2275-5301
- ▶ 포토랜드 -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4(필동1가, 중앙빌딩2층) Tel. 02)2273-9321 Fax. 02)2273-9339
- ▶ 이현상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2길 7 Tel. 02)2279-7070
- ▶ 포토랩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7번길 31-2 Tel. 031)312-0971 Fax. 031)312-0973
- ▶ 도솔 스튜디오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Tel. 041)546-5550
- ▶ 삼오사진 - 광주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금남로3가 1-5) Tel. 010-3622-4249
- ▶ 동양포토샵 현상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7-1 Tel. 042)626-2500
- ▶ 대한포토 현상소 - 대구시 중구 태평로 273 Tel. 053)423-9003
- ▶ 김포토샵 - 대전시 대흥로24번길 10 Tel. 042)221-9853
- ▶ 로알칼라 현상소 - 대전시 동구 정동 14-17 Tel. 042)255-4122 Fax. 042)221-4122

사진 기자재

- ▶ 브리티지애플 -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130번지 Tel. 02)3444-3800 Fax. 02)3444-3830
- ▶ 포토클럽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6번길 21 Tel. 031)488-9111 Fax. 031)488-9119
- ▶ 신지스튜디오클럽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20 삼송빌딩 Tel. 02)790-1310 Fax. 02)792-1310
- ▶ 벤로코리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1 흥국생명 1호별관 1층 Tel. 02)775-6621 Fax. 02)773-9724
- ▶ 코리아 포토프로덕트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F Tel. 02)3436-6775 Fax. 02)3436-6776
- ▶ 무한미디어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el. 02)518-7808 Fax. 02)6455-5808
- ▶ 반도카메라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4길 16 (충무로2가) 반도빌딩 Tel. 02)02-2266-5903~4
- ▶ 강산컴퓨터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길 25 청림빌딩 103호 Tel. 02)771-9891 Fax. 02)2265-0714
- ▶ 줌인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1(광복동 36-2) Tel. 051)255-0300 Fax. 051)256-2211
- ▶ 그린촬영시스템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0길 27(방배동) Tel. 02)535-6100 Fax. 02)535-6230

액자

- ▶ 아트룩스 총판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03호 Tel. 02)2653-9007 Fax. 02)2654-9007
- ▶ 두진아트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신천동 496번지) Tel. 031)314-1085
- ▶ 동일액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1-8 Tel. 063)282-6444 Fax. 063)231-6443
- ▶ 갤러리 예담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33번길 40 Tel. 1588-4286 Fax. 051)311-7791
- ▶ 공간액자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44-2 Tel. 042)222-2245
- ▶ 포토천지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929 Tel. 063)712-5509
- ▶ 삼원종합액자 - 대구시 남구 대봉로19길 28-2 Tel. 053)476-8959
- ▶ 한양액자 - 대구시 중구 태평로 51길 5-9 Tel. 053-428-1216
- ▶ 스마트액자 - 대구시 중구 종로 69(대안동) Tel. 053-426-8806
- ▶ 동진액자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77번길 6 Tel. 031-311-6575~6

월간 한국사진 광고문의 : 02-2655-3132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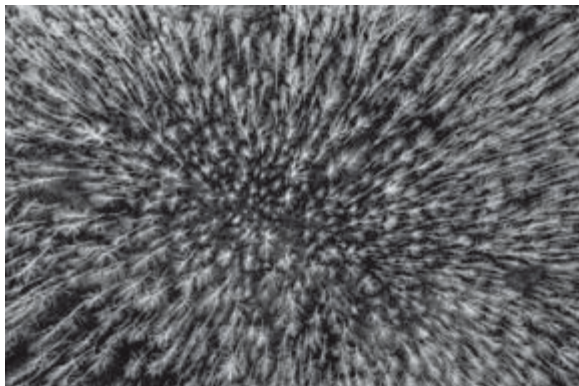
한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GALLERY

November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전시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 12월 1일(목) 오후2시 까지

전시장소 강동아트센터 1층 아트갤러리

전시오픈 2022년 11월 26일(토) 오후3시

초대작가 김양평, 김정식, 김일창, 류후선, 민병태, 서규원, 서진길, 장진필, 최부길, 고길홍, 신영팔, 김동민, 박용덕, 이강복, 이희배, 김석태, 배병수, 윤병삼, 이우탁, 김생수, 이종선, 조준환, 임계환, 전형국, 최재홍, 이종우, 김경환, 한창호, 김석원, 변영립, 함춘동, 김양호, 김부연, 류태수, 박경서, 박문규, 배원태, 유성수, 이정환, 정두원, 함재호, 강태진, 이덕만, 하영철, 선종백, 김문호, 김삼택, 김용현, 손석운, 이상일, 이주엽, 최영근, 최차열, 최기환, 김봉섭, 성상경, 한병률, 한성학, 김경자, 김달호, 조치호, 김정규, 김정금, 서진중, 이윤순, 김호숙, 오진수, 장영길, 조용철, 문남희, 박광수, 신성우, 이애영, 이재민, 임성동, 장현중, 정종관, 오경희, 오상관, 이석규, 이성록, 이승운, 전태국, 정 동, 홍순임



‘五色圖苑(오색도원)’ - 권순중 개인전(2022 갤러리 월 초대전)



전시일시 2022년 12월 6일(화) ~ 12월 15일(목)

전시장소 갤러리 월(경북 포항 남구 행복길75번길 11 호텔영일대)

전시작가 권순중

고정관념을 버린 시각의 변화를 예술적인 차원으로 표현해 본다는 건 어렵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사진에서 그림으로 이어지는 작품들이 그려져 갈때마다 나의 영혼은 춤추었고 기쁨 또한 함께 했다. <중략> 자연의 경이로움에 도취되었고 그 향기에 취하여, 꽃들의 연가를 만끽 할쯤에는 이팝이 그리는 그림 속 그림들을 함께 그려 나갔다. 다시 올 그날들을 기다려 가는데 감들이 익어갔고 아듀와 함께 기쁨과 설렘이란 느낌도 함께했다. 꽃내음 가득한 비경 속의 그림 같은 오색도원전으로 초대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해바라기 – 색의 유혹’
– 이상섭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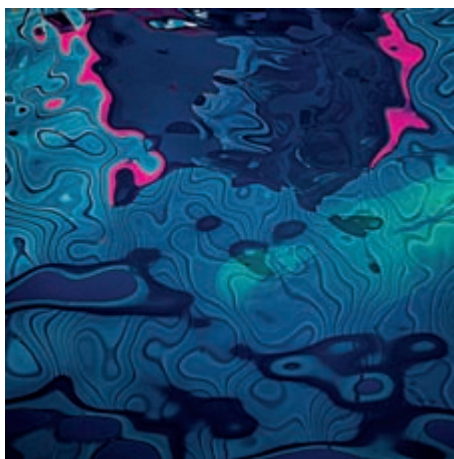
전시일시 2022년 10월 29일(토) ~ 11월 4일(금)

전시장소 아지트 갤러리(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인사동마루 본관 2층)

전시작가 이상섭

어릴 적 담장가에 늘어선 해바라기를 그리워하며 만든 사진집이다. 사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문구멍으로 바라보고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때마다 해바라기는 상냥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울타리에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다. 종류별로, 개화 시기 별로, 나눠 심었고, 날씨가 무더워질 무렵부터 해바라기는 개화했다.

“사진은 그리움이다”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땐 핀 홀 구멍을 통해 촬영했다. 작은 구멍 사이로 퍼지는 빛은 한 가운데에서 밖으로 얇은 색으로 퍼져 나간다. 연하고 은은한 그리움의 꽃 사진이 되었다. “색의 유혹”은 꽃과 배경색이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동이 틀 무렵에 촬영했다. 선명한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을 배경으로 꽃의 색을 가능한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노트 중에서>

‘물 위의 풍경 a watery landscape’
– 송진용 개인전

전시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 11월 20일(일)

전시장소 노송갤러리(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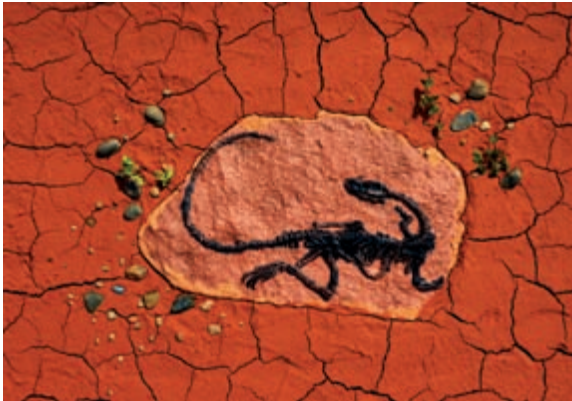
전시오픈 2022년 11월 15일 오후3시

전시작가 송진용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물 위의 풍경’ 사진 작업은 빛의 혼합과 빛의 표현이며, 자연의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접근을 선호해왔지만, 자연의 마음을 읽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다. 결국, 자연의 진지함을 인식하기 위해 물 위에 비치는 풍경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중략>

‘물 위의 풍경’은 놀랍도록 잔잔한 물결은 바람의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평화롭게 그려내고 있다. 삶의 본질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과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 고요함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의 편안함을 선사하고자 한다. 잔잔히 퍼져 가는 물결의 고요함이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은 넘치는 욕망을 끌어내고 평온한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존재의 흔적 – 화석 옷을 입다’ – 윤국헌 사진전



전시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 11월 27일(일)

전시장소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

전시작가 윤국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존재가 사라지면 부재가 되고 부재는 기억을 통해 존재한다
생명체들의 신체가 돌덩어리로 굳어버린 화석,
억겁의 세월을 건디어 온 존재의 흔적이자
남아 있음은 ‘그때 그곳에 살아 있었다’는 존재의 증거이다. <중략>

눈길 주는 화석 곁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살아있듯, 숨결이 들리는 환상에 빠진다.
화석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바다의 소리’ – 열 세 번째 한병률 사진전



전시일시 2022년 12월 5일(월) ~ 12월 11일(일)

전시장소 갤러리 이르

(대구시 중구 동덕로 14길 58-10 커피명가 2층)

전시오픈 2022년 12월 5일 오후5시

전시작가 한병률

바다의 소리를 찾아
오늘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

바다는 나에게
늘 아름다운 멜로디와
진한 향기를 전해준다. <중략>

오늘도 나는
바다의 소리를 찾아
나도 모르게 길을 나선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

November

‘노을진 뒷동산의 그리움’ - 박헌재 칠순기념 개인전



1차 전시일시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7일(월)

전시장소 전주 교동미술관 2관

전시작가 박헌재

2차 전시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 11월 20일(일)

전시장소 익산 줌갤러리

전시작가 박헌재

경치와 사물의 형체가 물감을 칠한 듯 변형될 때까지 구도를 구상하며 셔터를 누르는 순간엔 카메라로 캠퍼스를 터치하는 ‘회화적담론 사진창작예술(繪畫的談論 寫真創作藝術)’을 전개하고자 한다.

각종 촬영모드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초현실주의와 극사실주의(Hyperrealism)적 표현을 추구하여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진을 창출하여

아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체를 창조하는

감성사진운동(Romantic Photo Movement)의 사풍(寫風)을

널리 보급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칼럼과 함께

“노을진 뒷동산의 그리움”이란 개인전 전시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in Daegu’ - 한국영상동인회 대구지부 회원 초대전



전시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 11월 20일(일)

전시장소 대구 대덕문화전당 전시실

전시주최 대구시 남구청(대덕문화전당)

참여작가 권종국, 김경환, 이만석, 이원선, 임종복, 장영국
전광신, 전순희, 정기환, 정나경, 최미숙, 하의중

추억어린 옛 골목길의 정취와 대구를 대표하는 사찰 동화사,
대구가 보유한 보물,

그리고 재래시장(칠성시장, 남문시장 등),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간직한 복성로 공공골목 등

대구의 옛 모습과 현재 변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작가노트 중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제 17 회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2년 11월 19일(토)
도착분
(입회접수있음)

응모요령

출품자격 | 전국사진애호가(외국인 환영)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출 품 수 |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군산사계절, 고군산열도, 은파호수공원 풍경, 금강하구연, 금강철새, 새만금, 동백대교, 시간여행축제)
- 군산의 전통문화 유적지,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산물 및 각종행사, 스포츠 행사 모습
- 군산의 심볼마크, 시조(갈매기), 시화(동백), 시목(은행나무)를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 11"X14" 컬러 및 흑백(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 제외)

접 수 처 | 군산시 죽동1길 6-3(수송동) 피렌체빌딩 2F (사)시협군산지부
지부장 010-3671-3466 부지부장 010-3680-5121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 촬영장소를 필히 명기할 것

행사진행

접수마감 | 2022년 11월 19일(토) 도착분

심사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심사장소 | 추후공지

심사발표 | 2022년 11월 29일(화)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pask.net>)

전시기간 | 2022년 12월 14일 ~ 12월 18일

시상일시 | 추후공지

시상내역

금 상 1점 | 군산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 상 2점 |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금 각 15만원

입 선 6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작상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선(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ggk21@daum.net

제2회 전국 인삼사진 공모전



중부 내륙의 중심지인 증평군에서 충북인삼의 3분의 2를 생산할 만큼
집산지로서 증평의 고유 특산품 인삼 관련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 애호가 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요강

작품내용	증평 인삼골 축제행사 및 전국 인삼밭, 인삼 캐기, 인삼 파종, 인삼 수매 장면, 인삼과 관련된 모든 작품
관람내용	[증평9경 관광지] 보강천, 좌구산 구름다리, 천문대, 삼기 저수지, 에듀팜특구, 생태공원, 추성산성, 연병호 향일공원
출품료	30,000원
작품규격	11x14 컬러 및 흑백(4점 이내)
접수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75번지 문화센터내 증평예총 T.043)835-3970
접수마감	2022년 11월 30일 도착분
심사발표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홈페이지(www.paskjp.net) (12월 5일 예정)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산정작품
금 상	증평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1점
특별상	증평군의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입회점수 2점 인정)	인삼 1점 관광 1점
은 상	증평예총회장 상장 및 인삼 제품	2점
동 상	증평문화원장 상장 및 인삼 제품	3점
가 작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및 인삼 제품	5점
장 려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및 인삼 제품	5점
입 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입선작은 총 출품수의 20% 내, 입상작포함)	

- 입선·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입상작은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함)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자는 작품파일을 jppask@naver.com으로 입상작 발표후 7일 이내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상장과 작품 도록만 제작하여 발송함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회원은 정제, 비회원은 7년간 입회자격 유보됨
- 문의 : 한국예총 증평지회 043-835-3970
- 기타 자세한 사항 : 사무국장 010-5459-0361, 지부장 010-3382-1345



제31회 보령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2. 12. 01(목) 도착분** (사협 입회점수 있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진흥과 사진동호인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사진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제31회 보령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뜻 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작품
- ◆ 작품규격 : 11"×14" 칼라 및 흑백 (장정불요)
- ◆ 출품료 : 1인당 2만원
- ◆ 출품수 : 1인 4점 이내
-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필히 기재
- ◆ 접수마감 : **2022년 12월 01일(목) (도착분)**
- ◆ 접수처 : 우)33481 충남 보령시 송정2길 8-12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 010-3462-8233
- ◆ 심사 및 발표 : 2022년 12월 05일(월) 심사, 12월 7일(수) 발표 예정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 공모전 입상자 명단 난에 공시
- ◆ 시상식 : 전시 : 2022년 12월 28일(수) 보령문화의 전당 (예정)
- ◆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8일(수) ~ 12월 30일(금) 보령문화의 전당
-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 2점 : 보령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 동상 2점 : (사)한국예총 보령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입 선 : 출품작품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작품은 5일 이내에 원판필름 및 원본 파일 주최 측에 제출(미제출 상권 취소)
 - 입상, 입선작이 초상권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품자가 책임져야 하고 동일작,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은 취소되며 한국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향후 7년 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입상자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후원 :  충청남도  보령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보령지회

제37회 남원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문화 예술의 발전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사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37회 남원 전국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진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예총남원지회

남원시



접수마감
2022년도
11월 29일
(소인유효)

작 품 내 용

미풍양속에 저촉 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 품 규 격

컬러 및 흑백 11"× 14" 에 한함 (장정 불요)

출 품 료

인당 2만원 - (4점 이내) /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접 수 처

(우) 55775 전북 남원시 남문로 446 한국사진작가협 남원지부
(지부장 010-6530-2609, 사무국장 010-4163-1554)

접 수 마 감

2022년도 11월 29일 (소인유효)

심 사 발 표

한국사협 및 남원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남원지부- Cafe.daum.net/photo-nw 심사발표 : 12월 10일

시 상 내 역

금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 만원

은상 2점 - 한국예총 남원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동상 3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가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 상장

장려상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입선 출품자수의 20% - 한국사협 남원지부장상

시 상 및 전 시

남원 홈페이지 참조

기 (유의) 타

- 1)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사협 입회가 유보됨.
- 2)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초상권 및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3)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 4) 심사결과 발표후.금상 은상 동상 입상자는 16"x20"으로 인화한 사진을 10일 이내에 본 지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수상작품의 파일은 발표 후 7일 이내 V2609@hanmail.net 제출바람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2. 11. 10 (목) ~ 12. 9 (금) 까지 (당일도착분까지 유효)

• 응모방법

- 출품자격 : 제한 없음(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작품내용 : 영월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축제, 주요관광지, 레저 등 촬영작품
- 작품규격 : 일반부 11 X 14 무테(컬러, 흑백) SNS부 8 X 10 무테(흑백포함), 장정불요
- 촬영시기 : 일반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작, SNS부는 2022년 9월 1일 이후 촬영작만 인정
- 출 품 수 : 1인당 최대 6점 / 출품료 : 1인 4점까지 2만원 (4점 초과시 1점당 10,000원 추가)
- 접 수 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20 영월우체국 사서함 4호
-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출품표(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필착
- 문 의 처 : 지부장(정순만) 010-5378-3339, 사무국장(홍성래) 010-4194-9004

• 시상내역

구 분	일 반 부		SNS부		구 분
금 상(영월군수)	1점 상금	3,000,000	1점 상금	1,000,000	- 중복시상은 1인 2점으로 제한
은 상(영월군의회 의장)	2점 상금 각	2,000,000	2점 상금 각	500,000	
동 상(사협영월지부장)	3점 상금 각	1,000,000	3점 상금 각	300,000	
가 작(사협영월지부장)	5점 상금 각	500,000	5점 상금 각	200,000	
입 선(사협영월지부장)	60점 상금 각	100,000	26점 상금 각	100,000	

- 심사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3:00~ 영월군청 대회의실 (공개심사)
- 심사발표 : 심사후 3일 이내 사협·군청 홈페이지 게재

• 기타(유의)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입상 및 입선작은 발표 후 5일 이내에 원본 파일 제출 (미제출시 상권 취소) 해상도 300dpi, 장변 3,000, 단변 2,500 pixels 이상 jpg 또는 JPEG파일 / 필름의 경우 스캔받은 디지털 출력 파일(이미지 크기는 동일) 제출.
- 원본파일 제출처 : 이메일 sansaesoli@hanmail.net
- 제출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은 "2022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출품자 성명)" 으로 기재 / 작품파일 이름은 "성명(지역),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순으로 표기.
- 동일작, 유사작, 합성, 과한 보정으로 판명 될 경우 낙선 및 상권 취소

- 사진촬영 정보가 없는 사진 불인정.
- 입상자(금, 은, 동, 가작)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저작권 / 저작물 이용

- 응모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후원 측에서는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10년 동안 공익적 목적 (군정 및 홍보 등)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홈페이지 게시 등)을 할 수 있음.
- 응모작과 관련된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분쟁 발생의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주관/후원 측에서는 응모작 2차 저작물 작성이나 활용시에는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요함.
- 작품집 송부 : 응모자 전원에게 시상식 후 작품집 개별 발송.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음.

• 출품표(예시)

2021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출품표(일반부, SNS부)			
사진 정보		작가 정보	
작 품 명	붉은메밀밭의 추억	성 명	홍 길 동
촬영일시	2022. 9. 25. 10:30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1 (우)26223
촬영장소	영월읍 동강로 630(삼육 2리 먹골)	전화번호	010-4000-9000
상금수령계좌 : (통장번호)		(은행명)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후원 : 영 월 군

제15회 **홍성** 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2년 **11월 21일(월)** (소인유효, 입회점수 인정)

출품방법

-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적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작품규격 : 흑백 및 컬러 11"×14"에 한함(한 변의 길이는 정확한 규격이어야 함)
- ! 출품요령 :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요망
-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작품집(CD) 및 반송료 포함)
- ! 출품수량 : 1인 4점 이내
- ! 접수마감 : 2022년 11월 21일(월) (소인유효)
- ! 접 수 처 : 우)322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2-1(무궁화사진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지부장 : 010-9417-0597, 총무간사: 010-9412-5386)

심사, 전시

- ! 심사일시 : 2022년 11월 27일(일) 14:00
- ! 심사장소 : 홍주문화회관 (예정)
-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 심사발표 : 2022년 11월 28일(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 에 공시
- ! 시 상 식 : 2022년 12월 24일(토) 14:00
- ! 시상·전시장소 : 홍주문화회관
- !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4일 ~ 25일(2일간)

시 상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1,000,000원
- ! 은상 1점 : 홍성군수 상장 및 상금300,000원(홍성군내 관광유적 및 명소사진에 한정)
- ! 은상 1점 : 홍성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300,000원
-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홍성지회장 상장 및 상금100,000원씩
-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출품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출품자 전원 작품집 또는 CD 증정
- !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출판, 전시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상작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 동일작, 유사작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협규정에 따라 제재
- ! 입상·입선작은 심사발표 7일 이내(12월 3일)까지 원본파일(3,000픽셀 이상)을
E-mail : js6325386@hanmail.net으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시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 [단, 대리출석은 가능]
- ! 낙선작은 작품집(CD)과 함께 개별 반송함

주최·주관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

후원 : 충청남도·홍성군·홍성군의회·(사)한국사진작가협회·(사)한국예총 홍성지회